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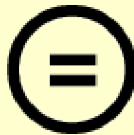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보육교사와
학부모 인식에 관한 연구



2015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상담전공

윤재선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최천근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보육교사와
학부모 인식에 관한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Perception of Nursery teachers
and Parents about the free care policy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 회 복 지 학 과

사회복지상담전공

윤 재 선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최천근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보육교사와 학부모 인식에 관한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Perception of Nursery teachers
and Parents about the free care policy

위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6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상담전공

윤재선

윤재선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국 문 초 록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보육교사와 학부모 인식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상담전공
윤 재 선

우리나라의 무상보육정책은 2011년 만 0~2세를 대상으로 보육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후, 2015년 6월 현재 만 0~5세까지 범위가 확대되어 올해로 4년째 시행되고 있다.

인간 발달 초기단계에 평등한 교육의 출발을 보장한다는 가치 아래 시작한 영유아 보육정책은 모든 아동들에게 무상 지원정책으로 변화하면서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부정적인 효과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효과가 수혜자인 학부모와 영유아 보육의 핵심 이해 관계자인 보육교사 측면에서 인식 차이가 있는 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상보육정책 시행 전과 시행 이후를 모두 경험한 학부모와 무상보육정책 시행 전후를 경험하면서 경력 5년 이상의 보육교사를 표본추출하여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특히 무상보육정책이 상호간에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떤 영역에서 주요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의 개선방향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주요결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 무상보육정책에 대해 보육교사는 교육기회를 사회적 소외계층까지 차별 없이 배려한다는 점에서 필요할 수 있지만, 재원마련 대책과 함께 소득수준에 따라 선별지원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학부모 역시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어 필요하다는 보았지만, 보편적 복지는 상대적으로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득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정책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둘째, 무상보육정책의 추진목적에 대하여 보육교사들은 저출산 해결,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 육아의 부담과 스트레스 해결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학부모들은 전반적으로 잘 알지 못했다. 특히 자녀출산의향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은 영유아 초기의 보육비용 지원만으로는 자녀출산의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업과 사회는 적극적으로 출산율 저하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무상보육정책의 시행으로 학부모가 인식하는 가장 큰 변화는 자녀의 양육비용 지출 감소에 대한 경제적 혜택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보육교사는 가정보육이 가능한 아동까지 보육시설로 몰림에 따른 학부모의 요구 증가로 학부모와 보육교사간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보육스트레스도 증가하였다고 인식하는 점 이었다.

무상보육정책의 개선방안으로 학부모에게는 무상보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책에 대한 홍보 및 부모 교육 등이 필요하며, 보육교사들에게는 보육시설의 운영시간 단축과 맞춤형 보육 시행을 위한 2교대 근무 등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무상보육정책, 보육 영향도, 무상보육정책 장단점, 무상보육 혜택, 보육 스트레스, 학부모와 교사 관계, 보육료 지원, 보육 교사 처우개선, 자녀출산의향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배경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목적	3
제 2 절 연구의 구성	3
제 2 장 이론적 고찰	6
제 1 절 무상보육에 관한 이론적 고찰	6
1. 보육의 개념	6
2. 보육정책의 의의	7
3. 무상보육의 개념	9
제 2 절 우리나라 무상보육정책	18
1. 추진배경	18
2. 보육료 지원 확대 현황	22
3. 보육서비스 전달 및 지원체계	24
제 3 절 외국의 무상보육정책	25
1. 핀란드	25
2. 스웨덴	26
3. 프랑스	28
제 3 장 분석 방법	30
제 1 절 조사설계 및 자료수집	30

1. 분석틀	30
2. 조사방법	31
3. 표본의 구성	32
4. 자료처리	34
제 2 절 자료분석 방법	34
 제 4 장 분석 결과	 36
제 1 절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보육교사와 학부모 인식 조사결과 ..	36
1. 무상보육정책의 만족도	36
2. 무상보육정책의 필요성	38
3. 무상보육정책의 시행배경	40
4. 무상보육정책의 인지도	41
5. 무상보육정책의 혜택	43
6. 무상보육정책의 보육관 영향도	49
7. 무상보육정책의 장단점 및 개선점	53
제 2 절 무상보육정책 실시 전후 보육교사와 학부모 인식 비교	57
1. 보육교사 입장	57
2. 학부모 입장	59
제 3 절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보육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비교	61
1. 만족도와 필요성	62
2. 혜택	62
3. 보육관	62
4. 실시 전후 달라진 점	63
5. 개선점	63
제 4 절 소결	63
 제 5 장 결 론	 66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66
제 2 절 결론 및 시사점	69
참고문헌	72
부 록	76
ABSTRACT	86



표 목 차

<표 1> 무상보육정책의 찬반 논거 비교	12
<표 2> 영유아 부모의 경력 단절 이유	21
<표 3> 연구조사 분석틀	30
<표 4>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3
<표 5>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보육교사와 학부모 인식 비교 요약	61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의 구성	5
<그림 2> 선진국 對 한국 출산율 변화	19
<그림 3>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부양비 변화	19
<그림 4>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20
<그림 5> 연도별 지원대상 확대 추이	22
<그림 6> 재정투자 및 지원 아동 수 추이	23
<그림 7> 아이사랑카드 도입 전/후 지원체계 비교	24



HANSUNG
UNIVERSITY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배경

1. 연구의 배경

영유아기 보육정책은 전인적인 발달의 기초를 형성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증가, 출산을 저하, 다양한 가족 구조의 형성,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 등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무상보육이 증가되고 있다. 무상보육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만 0~2세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비용 전액을 지원 결정 후, 2012년 3월 시행 되었고, 2013년 보육지원 체계 개편안이 수립되었으며, 현재는 만 0~5세 까지 미취학 전연령으로 확대되어 올해로 4년째 시행되고 있다.

이는 과거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던 영유아 보육료지원정책이 보편적 무상보육으로 급속히 확대된 것이다. 2012년 만 0~2세 무상 보육이 시행 되면서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2011년 0세 32.5%, 1세 53.1%, 만 2세 77%에서 2012년 0세 38.3%, 1세 68.1%, 2세 79.2%로 증가하였다 (양미선, 2014).

이는 가정보육 양육수당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보다 낮아 일부 학부모들은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손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서, 맞벌이 부모들뿐 만 아니라 전업 주부들까지도 자녀들을 가정 에서 돌보기보다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신우, 2012). 하지만, 보육료지원정책이 2013년 만 3~5세로 확대 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가 2011년 31.7%에서 2012년 25.9%, 2013년 23%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만 1세 이후 연령은 미이용 영유아가 40% 이상 감소하고 있다.

인간 발달의 초기 단계인 영유아기에서부터 공평한 출발을 보장한다는

가치 아래 시작한 영유아 보육정책이 모든 아동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양상으로 변하면서 긍정적 효과 이외에 부정적 효과들도 증가하고 있다. 무상보육이라 하지만 특별활동이나 특성화 프로그램 등 기타필요경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 부과가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보육을 실시한다는 명분으로 종일제 (12시간) 보육 외에도 시간연장보육 (24시간, 48시간 또는 일주일로 연장), 휴일 보육 (일요일, 공휴일에 지정된 거점형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 시간제보육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 기관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 하는 보육 서비스)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정규시간 외 초과 보육 이라는 점에서 아동의 욕구와 상충될 수 있고, 보육 남용으로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김영명, 2008). 이에 영유아기 의 적절한 성장과 발달을 고려해 볼 때,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무상 보육의 부정적 효과는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하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너무 이른 시기에 보육시설에 돌봄을 받거나 오랜 시간 맡겨지는 영유아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치기준과 판단에 도움을 제공하여 국가와 가정이 양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정효정, 2012).

학부모 외에 중요한 핵심이해관계자인 보육교사 측면에서 살펴보면, 무상보육정책은 영유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현실성 없는 이론과 정치 의견에 편승된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보육교사들에게까지는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육교사 측면에서 어떤 점을 개선하고, 어떤 정책을 새로 세워야 하는 지를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보육교사 의견 수렴 을 통해 영유아 보육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3년 간 상황을 되돌아보면, 무상보육정책은 정치적 쟁점과 맞물리면서 정치 이슈로 등장하기도 했고, 최근 경남 지역의 무상급식 이슈와 재정지원

악화 등과 관련된 문제가 나타나면서 무상보육의 실효성 에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요 사유는 무상보육 정책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보육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무상정책의 문제점, 대안을 찾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작 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상 보육정책에 대하여 보육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특히 무상보육정책이 상호간에 동일하게 받아 들여 지는지, 차이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영역에서 주요한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고, 향후 무상보육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학부모에 인식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무상보육정책 실시 전과 실시 후를 기준으로 보육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차이와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보육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차이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아래의 <그림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설명하고, 기존 연구 검토 및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본 연구 결과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제 1 장은 무상보육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와 학부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제제기 및 연구 배경, 연구 목적, 연구 구성 등에 관해서 서술하였다.

제 2 장은 무상보육 관련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제 1 절에서는 무상보육에 관한 연구를, 제 2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무상보육정책에 관한 연구를, 제 3 절에서는 외국의 무상보육정책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았다.

제 3 장은 분석방법으로, 제 1 절에서는 조사설계 및 자료수집을, 제 2 절에서는 자료분석 방법을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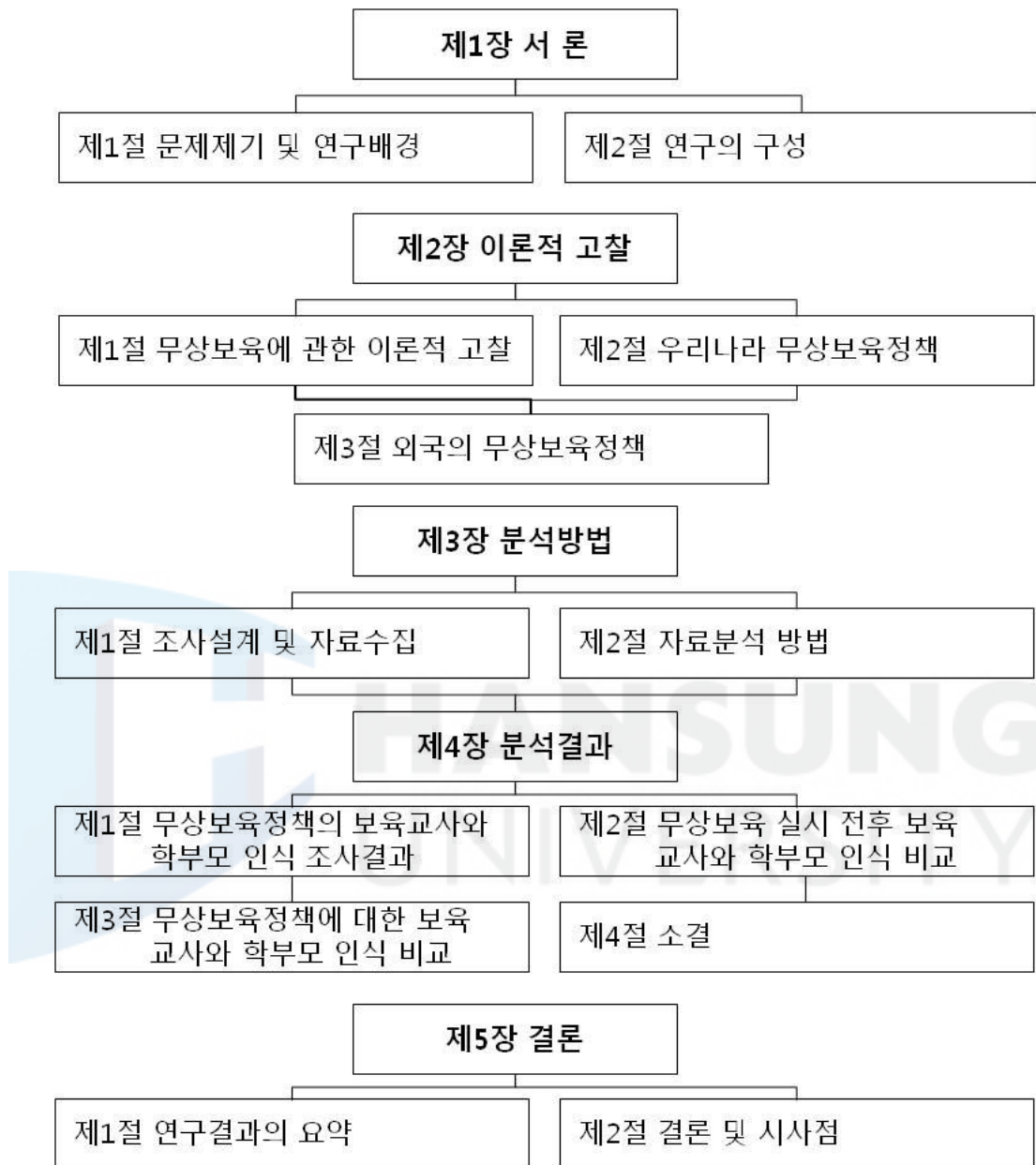
제 4 장은 분석결과로, 제 1 절에서는 무상보육정책의 보육교사와 학부모 인식조사 결과를, 제 2 절에서는 무상보육 실시 전후 보육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비교를, 제 3 절에서는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보육교사와 학부모 인식 비교를, 제 4 절에서는 소결을 서술하였다.

제 5 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과 결론 및 시사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 1> 연구의 구성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무상보육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보육의 개념

보육이라 함은 보호와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영유아의 신체적 보호와 전인발달을 위한 교육뿐 만 아니라 개별 영유아의 경험, 활동을 자극하거나 발달에 맞는 적절하고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정자, 2006). 보육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그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국가적 체도로써의 복지 서비스를 의미하기도 한다(백혜리 외, 2009).

그리고 보육이라는 일차적 개념에서 더 나아가 보육서비스를 제공 받는 보육 소비자 들을 대상에게 제공되는 일련의 모든 서비스를 의미하고, 유형, 무형의 서비스 전부가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외에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및 아동을 대상으로 특화된 서비스 일체를 의미한다(유구종 · 조희정, 2007).

보건복지부(2011)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제도적, 비용적인 투자를 통해 일어나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가 급속하고 지속적으로 증가되기에 이제는 보육 서비스가 영유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 정의하고 있다.

보육은 가족의 자녀 보호와 교육의 기능을 보완하는 복지서비스로 아동들이 보호와 함께 교육 받을 권리는 보장하고,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가정의 소득과 어머니의 취업 등의 다양한 환경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들을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보육정책은 국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영유아와 가정의 요구를 지원하고자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호와 교육을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이순월, 2011).

2. 보육정책의 의의

영유아 보육법에 의하면, 보육이란 만5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등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즉, 가족의 자녀 보호기능을 보완하는 복지서비스로 아동들이 보호하고 교육 받을 권리는 보장함과 동시에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가정의 소득과 어머니의 취업 등의 환경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들의 심신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보는 보육의 정의는 영유아의 기본권으로 영유아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기여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과 더불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근원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육아정책연구소, 2012).

보육정책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라 할 수 있다 (최미향, 2013).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년) 당시 목적은 아동의 주 양육자가 근로, 질병 등으로 양육을 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었다. 2004년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사업의 목적을 모든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복지를 증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보육대상을 모든 영유아로 확대시켰다는 점이 이전과 다른 점이다(명순희, 2013).

보육정책의 대상이 저소득층 계층의 아동, 결손가정의 아동, 장애를 가진 아동 등 취약한 환경에 놓인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는 물론이고, 그들의 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또한 기혼 여성들의 취업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미혼 여성의 취업을 지속시켜 준다는 점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대시

키는 측면, 그리고 취업여성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세대를 담당할 아동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보육정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김선애, 2007). 이에 국가는 세대 간의 갈등 소지를 제거하고 총체적 생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하고, 또한 건강하고 역량 있는 세대 계승자를 길러내는 대안으로 보육정책을 지속시키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박연화, 2013).

보육정책은 국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영유아와 가정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호와 교육을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영유아기 심신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의의가 있다(이순월, 2011). 이는 미래 국가의 구성원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보육정책의 중요성이 있다 하겠다. 김익균(2005)은 보육 정책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 보육정책은 사회발전이나 경제발전에 있어 역기능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요소들에 대처하는 예방적 기능이다. 부정적 요소들에 대한 예방적 기능은 미래의 사회구성원이 될 영유아들이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겪는 부정적 발달요소로부터 보호하여 긍정적인 미래 구성원으로 성장을 돕는 것이다.

둘째, 보육정책의 의의는 포괄적인 아동복지 증진 기능을 담당하는 데 있어 부모가 양육을 담당하지 못하는 시간동안 이를 보완하고 장애아를 위해 특수한 보호를 제공하며, 결손 가정의 아동을 돌보는 등 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셋째, 보육정책은 조기교육을 촉진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는데, 아동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보육서비스의 내용과 질을 통제함으로써 바람직한 경험과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넷째, 보육정책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정부는 보육비 지원에 의해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층 여성의 사회적 노동참여를 통한 소득기회를 늘림으로써 이중적인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가져 온다고 보았다.

다섯째, 보육정책은 지역사회 연계를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공동육아에서 보육되는 아동을 매개로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발달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육아는 영유아기 자녀를 두고 있는 개별 가정의 책임이 아닌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높아지면서 기존 가정양육을 대신할 공보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의 강조, 이에 따른 보육 공공성의 강조에 의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조성연 외, 2006).

3. 무상보육의 개념

무상보육이라 함은 무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을 의미한다. 여기서 영유아 무상보육은 영유아에게 보육의 경비를 부담하지 않게 하는 무료 보육이며, 보육료 이외의 필요로 하는 기타 경비는 각 시도별로 다르게 지정되어 학부모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무상보육은 국가 및 사회적 필요성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국가 및 사회적 필요성은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주로 산업화와 경제개발을 위한 필요로 시작하였다(김영모, 2002).

우리나라의 무상보육은 새마을 유아원 시대부터 시작되어 영유아 보육법 실시로 이어져 왔다. 우리나라 보육의 무상화는 그 혜택을 받는 보육 대상의 범위와 폭이 매우 넓어져 2012년 3월부터 만 0~2세와 만 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지원이 확대되었다. 무상보육 정책의 방향은 교육비의 직접 부담에서 간접부담으로, 개인부담에서 공적 부담으로 변화하고 있다(김영식 외, 1982).

정강희(2003)는 유아교육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 무상보육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무상교육 확대 및 재정 지원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이미화(2012)는 육아정책연구소 연구, ‘보육 중장기 발전방향: 2013~2017’에서 보육정책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는데, 보육정책의 방향으로 보육의 정체성확립과 이념정립 및 국가의 보육 책임강화,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보육의 질 관리체계 마련 등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해 논하고 있다.

김선영(2014)은 무상보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료 외 현재 학부모가 납부해야 하는 기타 필요경비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차원의 보육시설 운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유은경(2012)은 무상보육에 대한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무상보육에 대한 기대치와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무상보육의 확대와 지속적인 지원요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오현아(2013)는 무상보육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무상보육지원이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무상보육과 출산에 있어서 20대에서는 무상보육과 출산의도 간에는 관련이 있었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관련이 낮다고 보았다.

공인숙 외(2013)은 무상보육의 중요한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보았다.

첫째, 저출산 대책 마련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직장 및 사회 환경은 출산과 자녀 양육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저출산 고령화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체감한 보육정책과 자녀양육에 적절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질 높은 교육, 보육을 기대할 수 있다. 누리 과정은 교육, 보육의 질을 높이고, 조기교육의 안전 투자로서 큰 의미가 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구분 없이 국가수준의 표준화된 공통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중심으로 연령에 맞게 재구성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교과가 위주의 인지적 학습활동보다는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자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학부모 양육부담 경감이다. 만 0~5세 아동에게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매월 수십만원의 고정지출 부담이 줄어들어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최미경, 2012).

무상보육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김정래(2013)는 각각의 입장에 대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가. 무상보육정책의 찬성 근거

첫째, 조기교육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편차가 심한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되고, 국가가 관장해야 한다. 영유아 단계의 중요성 때문에 이 시기에 전문교육이 요구된다는 것은 보육의 국가 책임을 정당화하는 근거이다.

둘째, 국가가 관장하는 보육정책은 계층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평등 사회 실현에 공헌한다. 가정환경의 격차는 아이들의 재능이나 노력으로 극복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사회경제적 가치로 인한 격차는 부모의 노력이나 헌신으로 극복할 수도 없다. 따라서 있는 집 아이들의 좋은 환경에서 비롯된 격차는 무상보육으로 해소해야 한다.

셋째, 영유아 시기의 기본교육은 사회 발전의 초석이다. 이 시기의 교육기회를 놓치거나 소홀히 하면 사회에 부적응인력이 배출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이 중요성에 비추어 보육은 국가가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넷째, 무상보육은 사회적 효율성을 지닌다. 아동학대를 방지하면서 소외되고 방치된 아동을 보호해 준다.

나. 무상보육정책의 반대근거

첫째,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조기 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가의 무상보육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영유아시기에 가소성, 조기결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모의 책임이기에 결국 국가가 짊어져야 할 일차적 책임이 아니다.

둘째, 국가가 관장하는 무상보육정책이 계층간, 개인간의 격차를 해소하지 않는다. 국가가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한다고 해서 이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 무상보육정책이 불평등을 해소한다고 보는 것이 일종의 원인 혼란이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의 인과 관계를 잘못 짚게 되면 인지 함정에 빠지게 되고, 여기서 원인혼란이 발생한다.

셋째, 국가의 무상보육 실시는 부적응인력 배출이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자녀의 사회 적응 문제 역시 부모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다. 더욱이 국가 무상보육을 한다고 해서 부모 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의 무상보육 정책은 부모의 책임 회피 방편만을 제공해 준다. 부모뿐 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자립심, 자조 의식을 멀리하고 의타심과 기생심리만을 조장한다.

넷째, 무상보육 실시가 방치된 아동을 보호하는 방법이 아니다. 아동학대 방지, 소외된 아동의 보호를 위한 방법은 무상보육이 아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상의 찬반 근거를 <표 1>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구분	찬성 근거	반대 근거
보육의 책임	•조기교육의 중요성 •가소성에 따른 전문교육의 필요 •보육의 국가 책임	•가소성, 조기결정성 인정하더라도 부모의 책임 (국가의 일차적 책임 아님)
평등의 실현	•불평등 해소 •있는 집 아이들의 좋은 환경에서 비롯된 격차는 무상보육으로 해소	•무상보육이 있어서 이 격차는 해소 안 됨 (일종의 원인 혼란)
보육의 중요성	•미래 대비 기본교육 준비 (그렇지 않으면 사회 부적응 인력 배출)	•자녀의 사회 적응 문제 역시 부모 책임
효율성	•아동학대 방지 •방치된 아동 보호	•방치 아동 보호에 무상보육이 적합한 방법은 아님

무상교육의 순 기능도 있는 반면, 사회적 논란이 되는 문제들도 최근 많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도입초기부터 문제이기도 한데, 국회예결위가 2011년 12월 급작스레 0~2세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예기치 못한 문제점과 논란이 제기되었다. 그 예로 지방자치단체들은 무상보육 시행에 요구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고, 정부 또한 보육수요 예측 17만명을 훨씬 웃도는 초과수요 약 13만의 발생으로 그 어려움은 가중

되었다(정효정, 2012). 이에 그 대상이 0~5세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소요 재정에 대한 문제가 사회전반에 크게 부각되었고, 무상보육을 두고 ‘복지포플리즘’ 논란까지 제기되었다. 또한 기존의 보육체계가 민간시설 중심으로 발전해온 만큼, 시설에 대한 일괄적인 보육료 지원이 보육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도 제기되었고, 정부의 평가인증제의 적절성과 실효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결국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 보육단가 인상 및 인센티브 도입,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의 요구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정광진, 2012). 이외에도 시설서비스의 이용시간과 접근성, 안전성 등도 무상보육의 도입으로 부각된 정책이슈라 할 수 있다(서문희, 2012).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무상보육정책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가. 무상보육의 긍정적 효과

첫째, 무상보육은 모든 가족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문선화, 2011). 모든 아동의 무상보육 혜택을 받음을 의미한다.

둘째, 부모의 양육비용이 감소할 것이다(김사현 · 주은선 · 홍경준, 2013). 무상보육은 정책의 취지에 맞게 부모의 양육비용과 양육부담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무상보육은 저소득층,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소득 계층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기득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김사현 · 주은선 · 홍경준, 2013).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참여는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확충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무상보육은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조경엽 · 유진성, 2013). 보육에 대한 지원은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이숙희, 2011). 보육에 대한 투자는 부모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저소득 가계에 대해서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뿐 만 아니라, 부모들의 경제활동 참여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기대할 수 있다 (최미경, 2012). 무상보육은 무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국가 및 사회적 필요성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또한 무상보육은 아동의 권리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보육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보육의 질이다. 무상보육은 표준화된 공통의 보육과정에서 제공함으로써 사회경제적인 계층이나 지역에 제한이 없이 모두에게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나. 무상보육의 부정적 효과

무상보육이 확대 실시되면서 많은 부모들이 가정에서 양육하던 자녀들을 어린이집으로 보내기 시작한 것도 부정적 효과라 할 수 있다. 김정래(2014)가 제시한 부정적 효과를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1) 규제의 악순환

무상보육 전면실시는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와 보육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부모로 하여금 유아 사교육 수요를 유발시켰다. 유아 사교육 수요의 발생은 다시 유아 사교육 증대를 규제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제를 야기한다. 이는 평준화 정책 체제 아래서 사교육 수요가 발생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학습교습시간 제한, 학원교습료 규제 등과 같은 또 다른 서비스 규제조치를 수반하는 것과 같다. 보육서비스 질 저하에 따른 사교육 수요발생은 보육시설 공급욕구를 증대시킨다. 사실상 신도시 등을 제외하고 어린이집 증설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아 사교육 증대 억제는 종일반 운영 수요

증대를, 이는 수요증대를 무시한 경영전반에 대한 규제와 간섭에 영향을 주고, 결국 원장 편법 운영 조장 및 비리의 속출이라는 꼬리물기식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 규제의 악순환 고리는 폐해의 확대재생산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2) 가격 규제에 따른 폐해

무상보육정책의 전면 실시는 모든 보육시설의 보육료와 시설기준 등이 똑 같아야 한다는 보편성에 관한 환상을 야기한다. 보편성 환상이라 함은 평등주의를 표방한 정책이 낳는 폐해를 가져오고, 그 환상이 곧 가격규제와 연결되면서 각종 폐해가 야기된다. 가격규제 측면에서 폐해를 좀 더 살펴보면,

첫째, 가격규제는 보육시설의 설립운영자가 이윤 극대화를 위해 보육단가를 줄이게 유도한다. 그 결과 보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

둘째, 가격규제는 초과수요에 따른 공급증가 유인가를 발생시킨다. 무상보육 전면실시에 따라 국가지원을 받고자 하는 욕구와 더불어 보육시설 공급 유인가가 발생한다. 그러면 보육시설이 난립하는 현상이 야기되어야 하지만, 실상 설립에 대한 규제, 학생정원 규제, 교사의 정원규제 등으로 이어진다. 가격규제가 여타의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셋째, 가격규제는 각종 부작용을 누적시키지만 그것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또 다른 폐해를 야기한다. 무상보육 전면실시는 온당하게 보육사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확인할 수 없게 한다. 무상보육의 전면실시는 자유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보육료가 얼마인지를 확인 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잠재적 폐해는 국가 주도의 보육사업 이외의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보육사업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왜곡현상을 야기한다. 국가 지원을 받는 보육시설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족은 과대평가의 경우에 해당하고, 언론이나 여론에 의하여 사교육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조장은 과소평가의 경우에 해당한다.

넷째, 가격규제는 또 다른 가격규제를 불러온다. 무상보육 확대 실시는 무상보육의 규제가격이 0이 되도록 함으로써 여타의 가격 규제의 원인이 되도

록 한다. 예로 월 보육료 수납 한도액 책정(규제)이 곧 방과 후 몇 시간 연장형 보육료 수납 한도액 책정(규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것이다.

(3) 선택권의 제한

무상보육 확대정책은 선택권을 제한한다. 선택권 제한이 야기하는 폐해는 위험적 요소를 비롯하여 자유경쟁체제의 장애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근거에 비추어 설명되는데, 그 폐해 역시 다양하게 드러난다. 그 양태를 살펴보면,

첫째, 보육시설의 공영화에 따른 폐해이다. 공영화는 향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과 같은 이른바 근거리 배정원칙을 고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모의 보육시설 선택이 제한된다.

둘째, 정부 보조금 지급에 따른 교육 소비자의 권리제한을 들 수 있다. 보육시설의 선택 제한과 함께 보육 서비스가 일원화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국가 주도 아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과정 통합, 즉 누리과정의 시행이 이에 해당한다. 누리과정을 통한 선택권 제한은 학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도 제한해 버린다.

셋째, 누리과정을 통한 선택권은 학부모뿐 만 아니라 보육시설 설립, 운영자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선택권도 제한한다. 천편일률적인 보육 서비스가 표준형이니 누리과정이니 하는 이름으로 합리화된다.

넷째, 민간 보육시설의 위축을 들 수 있다. 민간시설을 무상보육대상으로 확대하면 공공보육시설과 민간 보육시설간의 역할 문제가 발생한다(현진권·전희경, 2013).

다섯째, 사적 영역의 축소를 가리키는 보육사업의 선택 제한은 무상=공영화 등식에 따라 학부모와 보육시설 양쪽 모두의 효용감소로 이어진다. 즉 선택 제한은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기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문제는 그 효용의 감소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야기된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4) 도덕적 해이

모든 무상복지정책이 지니는 공통적인 폐해는 주로 사회주의 정책이 야기하는 폐해에 속한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도덕적 해이라 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는 보육과 관련된 모든 주체에 두루 나타난다.

첫째, 무상보육 전면 실시는 부모의 기생심리가 증대되는 폐해를 수반한다. 무상보육 전면 실시가 곧 부모 부담 보육비 동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익자 부담 원칙이 사라져서 부모가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국가에 대한 요구로 이어진다.

둘째, 보육시설의 설립, 운영자에게도 보육책무의 이완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다. 보육의 일차적 책임을 지는 주체인 부모의 수요보다는 국가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주력하게 된다. 부모의 기생심리와 보육시설 운영자의 도덕적 책무 이완이 맞물려서 공유지의 비극 현상이 무상보육 전면 실시 과정에서 발생한다.

셋째, 도덕적 문제라기보다는 분배의 문제에 해당하지만, 무상보육 전면 실시에 따른 각종 규제는 분배의 원칙을 어기고 강압적 재분배를 강행하는 폐해를 드러낸다. 같은 경제적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무상보육의 확대에 따라 이들을 혜택을 받는 승자와 그렇지 못한 패자로 갈라놓는다(김정래, 2014). 결국 무상보육 정책에 따른 재정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고, 여전히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점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이슈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보육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 2 절 우리나라 무상보육정책

1.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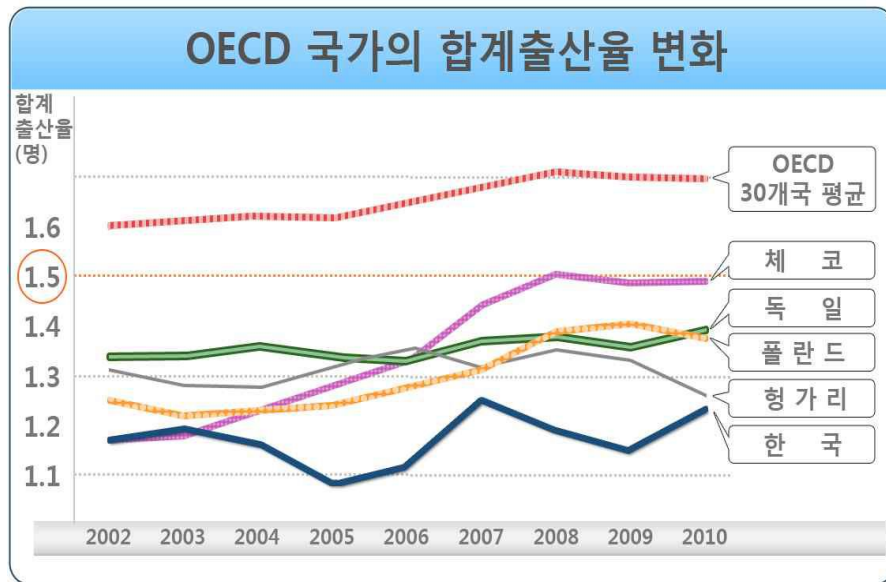
무상보육정책은 미래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여성의 경제활동지원 및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닌 핵심적인 사회정책이다. 정부는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무상보육정책을 시행하였다. 추진배경에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여성의 경제활동 저조, 낮은 경제성장, 영유아 보육과 교육 격차 확대라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국가는 책임지는 보육 지원의 틀을 단계적으로 확립하고자 2009년 아이사랑 플랜을 계획하여 재정을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인프라 투자나 시스템 정비가 미흡하다는 단점을 보완하여 2013년 공급자 중심의 양적 확충보다는 수요자인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부모의 선택권을 높이는 촘촘한 맞춤형 지원에 역점을 모색하였다. 무상보육정책이 추진된 배경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저출산과 고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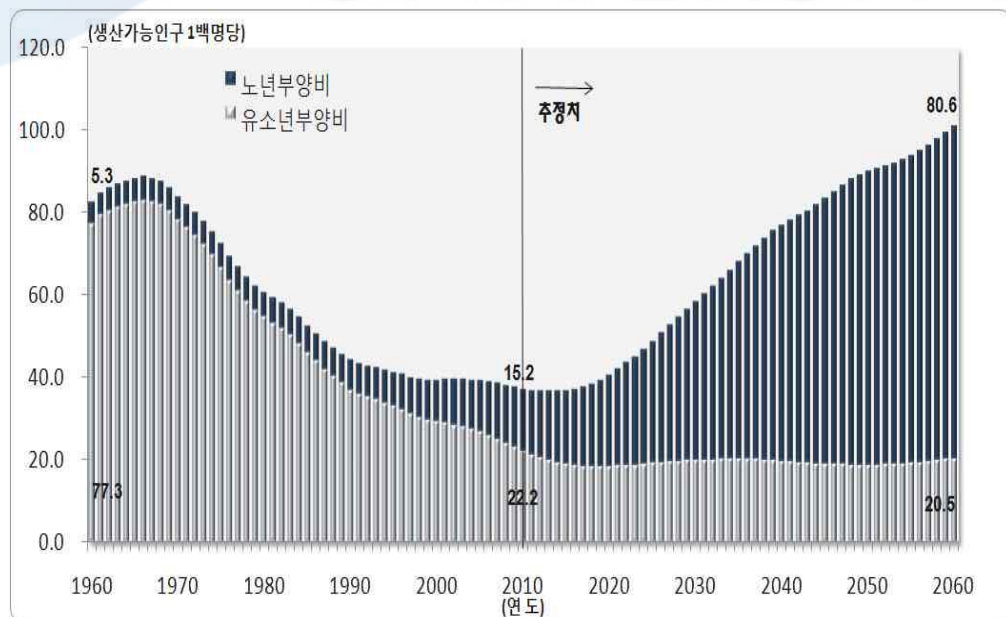
높은 사교육비 및 보육비 부담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출산을 중단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그림 2> 선진국 對 한국 출산율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05년 이후 세계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2010년 일시 반등하였으나, 지속은 어려울 전망으로 보인다. 2008년 프랑스 2.0, 스웨덴 1.91, 영국 1.96, 독일 1.38, 미국 2.12로 OECD 평균 1.71에 반해 한국은 턱없이 낮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선진국 對 한국 출산율 변화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 안에 생산가능인구는 감소(2017)하고, 고령사회 진입(2018) 및 총인구 감소(2019) 등 인구변화의 가시화가 예상된다.

<그림 3>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부양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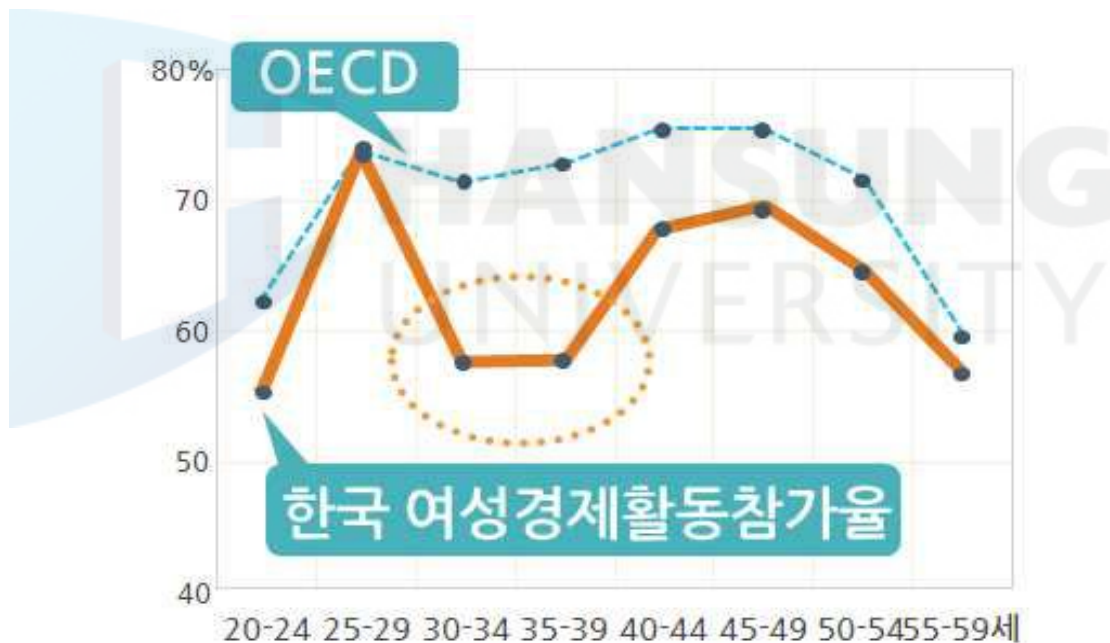


<그림 3>에서 생산가능인구 1백명이 부양해야 하는 인구가 2010년에는 37.3명이지만, 현재 출산율을 전망해볼 때, 2040년에는 77명으로 두 배의 수치를 넘게 된다. 또한 유소년인구와 고령인구규모의 비율도 2010년에는 100:68.4에서 2040년에는 100:288.6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여성의 경제활동 저조

무상보육정책이 추진된 배경에는 <그림 4>에서 보듯이 30~39세 주 출산연령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타연령대에 비해 대폭 낮아지는 M-curve 현상의 지속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림 4>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OECD, Employment database(2010년)

출산여성들 즉, 영유아 부모의 25.2%가 경력단절 경험이 있으며, 재취업이나 재취업 기회가 생기지 않았던 주된 이유(48.7%)는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2012, 보육실태 조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영유아 부모의 경력단절 이유

구분	비율(%)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48.7%
몸이 힘들어서	32.3%
일이 많아서 육아에 지장	11.4%
아이 맡기는 비용이 많이 듦	3.8%
기타	3.7%

*보육실태조사(2012)

다. 낮은 경제성장

특별한 계기 없이는 과거와 같은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대 4.1%, 2020년대 2.8%, 2030년대 1.7%로 정도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분배 개선 효과는 점차 약화(Jobless Growth)되고, 중산층 감소, 고용불안 심화 등으로 취약계층 증가가 우려되며,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의 절대빈곤 인구는 약 480만명(인구의 9.6%),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은 14.3% (OECD 평균 10.58%)로 나타났다.

라. 영유아 보육과 교육 격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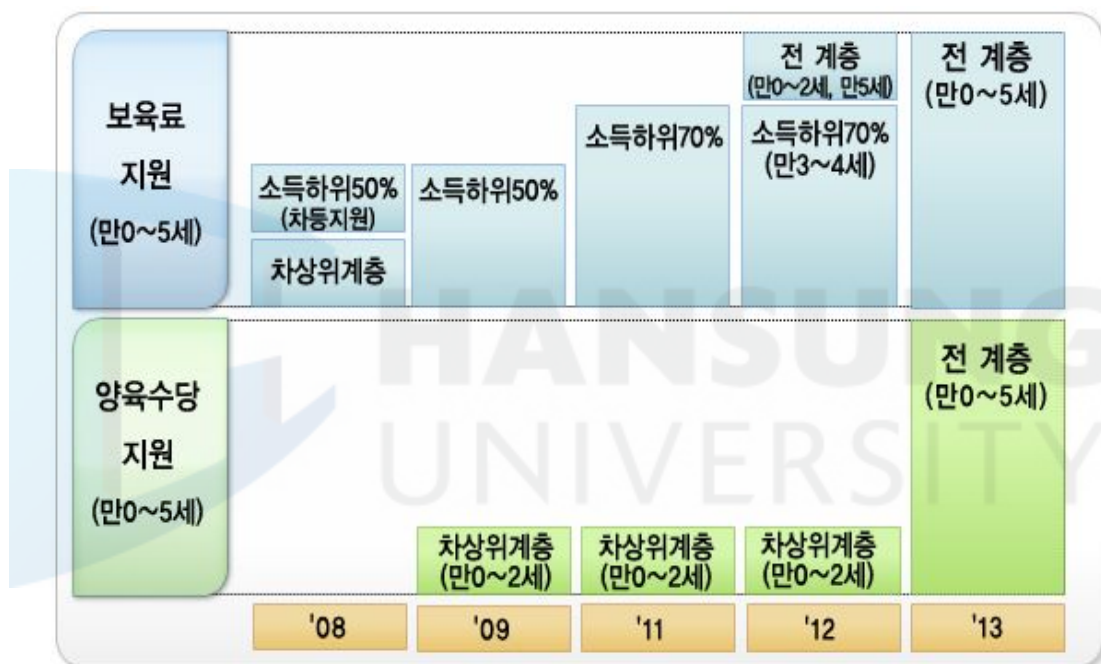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영유아기의 중요성은 저출산 시대에 더욱 부각되나, ‘가능한 최적의 출발선’ (The Best Possible Start)을 제공하기란 쉽지 않다. 한 예로 영국 EPPE Project(2007)에서는 1명의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도록 약£ 2,500를 지원하는 것은 부모의 수입을 약£ 17,000 직접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계층간 아동의 보육·교육 격차는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우려도 있는 가운데 소득하위 20% 가구와 소득상위 20% 가구간 사교육비 지출차는 7.5배(2009)로 나타났고, 수능 점수

차이는 월소득 200만원 이하 287.63점, 500만원 초과 317.38점으로 격차가 나타났다.

2. 보육료 지원 확대 현황

우리나라의 보육료 지원은<그림 5>과 같이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2011년 소득하위 70%까지 점차적으로 지원 확대되었다.

<그림 5> 연도별 지원 대상 확대 추이



<그림 6>과 같이 연도별 보육지원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재정 투자 및 지원 아동수 추이



가. 2011년도 지원현황

2008년도에는 차상위(소득하위 15%)에만 제공되던 보육지원이 2009년도에는 소득하위 50%까지, 2011년도에는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되었다. 양육수당도 2009년 차상위, 24개월 미만 대상에게 10만원을 제공하였던 것이 2011년도에는 36개월 미만 대상, 10~20만원까지 확대되었다.

나. 2012년도 지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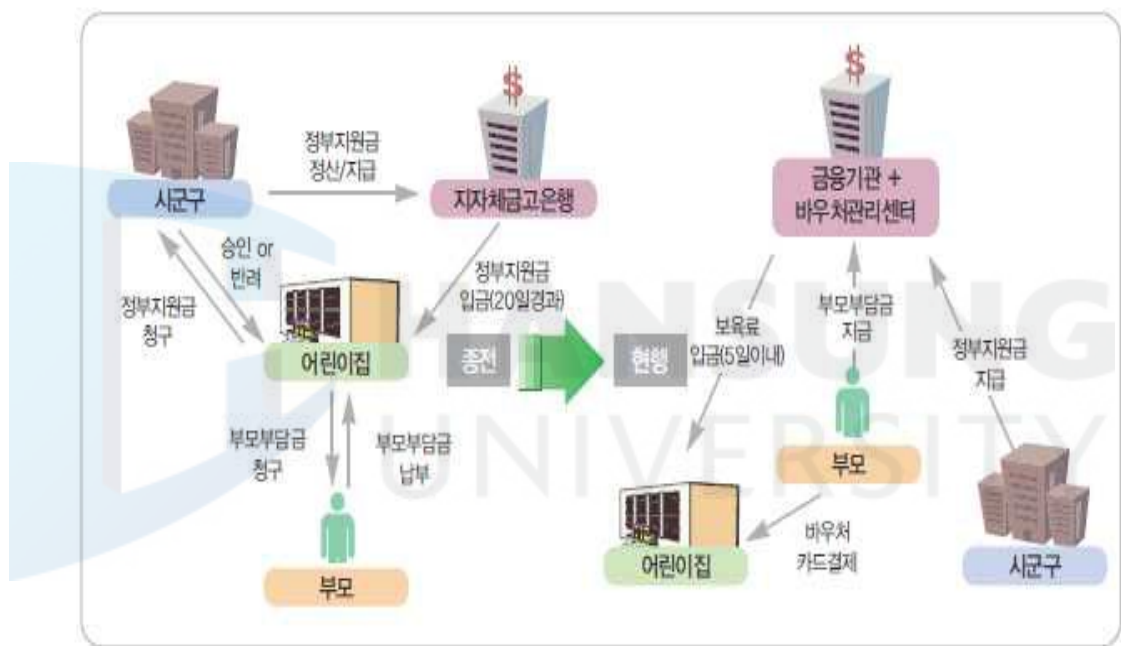
2012년도에는 만 5세 누리과정 및 0~2세 전계층 보육료 지원으로 국가 책임이 더욱 강화되었다. 보육료(국고)는 2008년 1.1조원에서, 2010년 1.6조원으로, 2012년에는 3.1조원까지 확대되었고, 양육수당(국고)은 2009년 신규 324억원에서 2012년 1,120억원으로 확대되었다.

다. 2013년~현재 지원현황

2013년부터는 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에 따라 국가완전책임제로 추진하게 되면서 유아교육 보육은 5세 누리과정을 3~4세까지 확대하였으며, 양육수당도 가정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초·계층으로 지원이 확대되었다.

3. 보육서비스 전달 및 지원체계

<그림 7> 아이사랑카드 도입 전/후 지원 체계 비교



<그림 7>의 모형에서 알 수 있듯이, 2012년 아이사랑카드 도입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반이 구축하게 되었다. 아이사랑카드란 소득, 연령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아동의 부모에게 서비스이용권을 전자카드(아이사랑카드)에 담아 특정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보육료 지원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를 결제하면 금융기관에서 해당 어린이집으로 5일 이내 입금된다.

제 3 절 외국의 무상보육정책

1. 핀란드

핀란드는 1973년 핀란드 보육사업의 기초가 된 영유아 보육법 등 일련의법 제정을 통해 모든 보육시설에 대해 국가지원 보장을 확고하게 정립하고, 1996년부터는 취학 전 아동 누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립보육시설과 유아학교(preschool)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 재정을 투입하고, 이들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나갔다. 2003년부터 ‘영유아 교육보육에 관한 국가교육과정(The National Curriculum Framework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Finland)’을 제정해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가 습득해야 할 기본 내용의 틀을 국가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다.

핀란드의 0~6세까지의 영유아 교육보육은 주로 보건복지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에서 관할하고, 취학 전 6세아의 유아교육은 교육부(The Ministry of Education)에서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교육 보육서비스를 이행하고 조정하며, 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시설을 제공하는 등 전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 한편, 각 지방사무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관리 감독하고 매년 평가를 실시한다(OECD, 2005).

핀란드의 영유아 보육서비스는 보육시설과 가정보육서비스로 나뉘고, 부모가 아이와 함께 놀이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개방형 보육시설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보육시설은 연중 운영되며 종일제를 기본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시간제 보육, 24시간 보육서비스도 제공된다. 2004년 8월 1일 유아학급 및 학령기 아동을 위한 일과 전후 보육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 각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아동당 연간 최소 570 시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녀를 둔 부모는 소득 수준과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원하는 경우 모두 이용 가능하다. 기관 이용 아동으로 보면 사립시설 이용 아동은 5% 미만이다. 서비스 이용률은 영유아 중 0세아는 주로 부모가 돌보기 때문에 거의 이용이 없고, 1세 27.5%, 2세 43.9%이고 3세가 62.3%, 4세 68.7%

이고 5세가 73%이다.

핀란드 보육비용 지원은 공공 및 사립 기관 이용과 부모양육 지원이 혼합되어 있다. 자녀가 출생하면 부모들은 부모휴가를 하는데, 휴가가 끝나고 나면, 아동양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선택지는 공공보육시설 이용, 사립보육시설 수당을 받으며, 사립보육시설 이용, 휴직하고 양육수당을 받으며, 부모 직접 양육, 어린이집 이용과 부모 직접 보육이 혼합된 유형도 가능하다. 법적으로 1973년 아동보육법으로 지방정부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책임을 명시하였고, 1990년에 만 3세 이하 아동에 한하여 공공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고 가정양육수당을 받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97년에 사립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에게 사립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즉 정부가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주어야 하므로 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을 주는 방식으로 부모 부담을 보조한다.

2. 스웨덴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장선화, 2013). 이러한 사회민주주의 가치인 평등, 정의, 연대 등은 보육정책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아동의 발달과정과 학습지원을 하며 삶의 첫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들에게는 직장생활과 또는 학업, 자녀양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보육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명순희, 2013).

스웨덴은 1992년부터 늘어나는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보육시설의 확대와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이 시기부터 중앙정부의 강력한 제제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이 이양되기 시작하였으며, 중앙정부의 100% 보육비용 부담에서 1992년 23~33%로의 감소 및 지방정부의 49%에서 62%의 비용분담률이 변화하였다. 이로 인해 현재 스웨덴 지방정부는 보육시설의 조직과 운영, 자금 조성에 관해 높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유해미, 2003).

스웨덴의 보육서비스는 조세를 통한 공공재원과 부모의 보육비 지출을 통

해 운영된다. 이용료는 소득평가형으로 부모의 소득수준과 자녀수, 사용시간에 따라 달리 책정된다(정인선, 2012). 스웨덴은 유아교육을 공공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모든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다(조병환, 2006).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0세 아동보육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이처럼 부모의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18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다. 18개월 이상에서 취학 전까지는 반일제 무상보육을 제공하며, 만 3~6세는 주당 15시간까지 무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이삼식, 2012).

스웨덴의 보육시설은 크게 종일제와 시간제 기관보육시설이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며, 그 밖에 가정보육시설, 부모 협동 보육시설, 레저타임 센터 등이 있다. 이 중 영아보육을 담당하는 곳은 공립 기관보육시설의 영아집단으로서 1세에서 3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영아 5명당 2인의 보육교사가 담당한다. 이외 공립 가정보육시설은 가정탁아모를 돌보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한 형태이며, 가정보육모가 자신의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형태이며, 1~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이 시설은 조직화된 가정보육시설로서 종일제 및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어 1992년 약 18%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 민간 가정보육시설은 부모들이 직접 가정보육모에게 비용을 지불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서비스의 질을 규제하지 않는다.

교육법에 따라 정부는 1~12세 아동들에게 취학 전 활동과 아동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기에 취업 중인 부모뿐 만 아니라 학업 중인 부모, 실업 상태에 있거나 다른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 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1일 3시간 또는 주당 15시간의 보육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 밖에 3세 이상의 모든 아동들에게 연간 최소 525시간의 무상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육 관련 기관들은 2008년 현재 총 20,253개가 있는 데, 이 중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 전체의 80.5%가 된다. 지방정부 중심의 보육시설 공급이 스웨덴 보육의 특징이다(명순희, 2013). 스웨덴의 공공보육대상 연령은 만 1세 이상이다. 산후 360일의 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출산휴가가 종료되면

부모는 직장에 복귀하고, 아이는 공공보육시설에 맡기는 것이 당연하며, 개인 탁아는 스웨덴의 유아 보육 형태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김계순, 2011).

이와 같이 스웨덴은 보편주의 보육이념 정착으로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공립보육시설의 양적 확대정책을 실행하였고, 이후 지방정부로 권한을 점차 이양하여 탈중앙화를 꾀하였고, 민간보육시설의 지원 확대에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현하였다. 또한 0세에서 1세에 이르는 영유아를 위한 정책으로 360일에 이르는 유급 출산휴가제도를 통해 취업모가 직접 영아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양육의 책임을 사회뿐 만 아니라 부모 모두의 권리 및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

3. 프랑스

프랑스의 보육 지원 및 가족정책은 1945년 이후의 사회보장의 틀 안에서 시작되었다. 즉 사회보장제도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과 가족의 쾌적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보육지원 및 가족 정책의 목적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한지혜, 2004).

프랑스는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만 0~3세까지의 영아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영아보호와 교육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유럽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황성원, 2009). 프랑스 보육지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부모는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한다. 프랑스 노동법에 따르면, 임신부에 대한 출산 전 6주, 출산 후 10주의 유급출산과 육아 수당이 있고, 무급휴직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며, 출산 육아수당도 있다. 1994년 이후 보육의 행정, 재정, 지원을 살펴보면, 집단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금액보다는 개별보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양육수당, 가정 내 보육수당, 등록 보육모 고용지원제도 등에 대한 급여지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프랑스 보육정책은 변화를 겪고 있다. 프랑스는 가정이 사회통합의 시초이며, 자녀를 낳고 기르

는 것은 개인이나 가족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지고 정부가 직접 개입할 문제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의 출산관계 및 가족형성을 범 정부적으로 지원, 장려하는 정책을 장기적,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신윤정, 2009), 특히 1990년 중반부터 가족형성을 지원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사회 복지 및 안전망을 확보하는 일반적 가족지원정책 차원으로 확대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송승민, 2006). 이와 같이 프랑스는 영아보육 지원정책으로 영아 양육 가정을 위한 다양한 보육시설의 운영과 함께 가족 수당, 사회복지 분담금의 감면, 가정보육모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가정의 보육여건을 향상시켰다. 또한 자격을 갖춘 가정보육모를 고용했을 경우에만 재정지원을 하여 제도적으로 보육모의 질을 관리하고, 음성적인 영업을 규제하여 영아보육의 양적, 질적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제 3 장 분석 방법

제 1 절 조사설계 및 자료수집

1. 분석틀

실증분석을 위한 분석틀은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본 기존 문헌의 조사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보육교사와 학부모 대상의 인터뷰 분석틀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연구조사 분석틀

No.	보육교사	학부모
만족도	•무상보육정책 만족도 수준, 이유	•무상보육정책 만족도 수준, 이유
필요성	•무상보육정책 필요성 정도, 이유	•무상보육정책 필요성 정도, 이유
시행배경	•무상보육정책 시행배경	•무상보육정책 시행배경
인지도	•무상보육정책 개념과 지원범위	•무상보육정책 개념과 지원범위
혜택	•경제적 혜택 •(재)취업 혜택 또는 (재)취업 동기부여 •보육프로그램 및 교육 투자 •학부모의 자녀출산 의향 •보육스트레스 절감 •보육교사 자기개발 기회	•경제적 혜택 •(재)취업 혜택 또는 (재)취업 동기부여 •자녀 교육 투자 •자녀출산 의향 •양육 스트레스 절감 •부모 자기개발 기회
보육영향도	•보육관 변화 정도, 이유 •어린이집의 자녀보육 역할 대체 수준 •가정보육 전환 영향도, 이유	•보육관 변화 정도, 이유 •어린이집의 자녀보육 역할 대체 수준 •가정보육 전환 영향도, 이유
무상보육시행전후 비교	•시행 전후 달라진 점 •보육교사 본인 변화 •보육시설 환경 변화 •보육 프로그램 변화 •보육교사 태도 변화 •보육교사 처우 개선 변화 •학부모 처우 개선 변화 •학부모와 교사간 관계 변화	•시행 전후 달라진 점 •학부모 본인 변화 •보육시설 환경 변화 •보육 프로그램 변화 •보육교사 태도/전문성 변화 •경제적 혜택 변화 •학부모 처우 개선 변화 •학부모와 교사간 관계 변화
무상보육장점	•무상보육정책 장점, 이유	•무상보육정책 장점, 이유
무상보육단점	•무상보육정책 단점, 이유	•무상보육정책 단점, 이유
무상보육개선점	•무상보육정책 개선점	•무상보육정책 개선점

2. 조사방법

본 연구는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보육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무상보육시행 전 보육시설에 보낸 자녀가 있으면서 무상보육정책 시행 이후 자녀를 국공립형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보낸 경험이 있는 학부모와 국공립형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방법은 현상학적 심층 인터뷰를 통한 정성적 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정성적 연구방법은 자연주의적(Naturalistic), 해석적(Interpretive) 연구방법 등으로 불리며, 총체적 시각, 정성적 자료의 사용, 귀납적 분석, 상황에 의존하는 관찰 및 해석을 그 특징으로 한다.

Thomson(1997)에 따르면, 발견 지향(Discovery-Oriented)의 연구목적에 지니는 연구에는 현상학적 인터뷰 방법을 사용한다. 현상학은 현상과 그 현상이 개인들에게 지니는 의미를 연구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써 개인들을 인터뷰하고, 현상에 대한 심리학적 관점에서에서의 연구를 찾고, 정해진 과정을 따르며, 의미를 가지고 마무리하는 연구방법이다(Creswell, 1998). 현상학적 인터뷰는 개인의 경험들을 기초로 하나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학문인 현상학을 기초로 사용하는 심층 면접법의 일종으로써(Fournier, 1998; Thomson 1997), 심층 인터뷰는 개방적이고 친밀한 대화를 통한 자료 수집과정을 통해 응답자의 감정과 생각을 방해요인 없이 자연스럽게 알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이해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인터뷰(Phenomenological Interview)를 통해 개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무상보육정책과 개인의 경험적 측면을 살펴볼 것이며, 보육교사와 학부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대상에게는 질문지 항목을 기준으로 문의하고, 조사대상이 직접 설명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설문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1차로 4월 27일~30일에 걸쳐서 각각 학부모 5명, 보육교사 5명을 대상으로 Pretest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응답자로부터 얻은 의견을 바탕으로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측정 및 비측정오차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

는 2015년 5월 6일부터 15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20명 (학부모 10명, 보육교사 10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고, 여기서 얻은 심층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보육교사와 학부모 모두 개별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학부모와 보육교사에게는 무상보육정책과 관련된 만족도, 장단점, 실시전후 차이점 등을 제시하도록 문의하였다. 총 20명은 연구에서 본 연구의 주요 이해관계자들로써 이론적 표본추출방법(Theoretical Sampling)에 의해 선정된 대상자들이다.

3. 표본의 구성

<표 4에 제시된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조사지역은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심층 인터뷰와 조사대상 추출이 용이한 서울시 종로구 소재 국공립형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와 근무 중인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학부모는 무상보육정책 실시 전후 비교를 위해서 2015년 5월 현재 무상보육지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와 무상보육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자녀가 있는 학부모로 총 10명을 표본추출하였다. 보육교사는 2015년 5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무상보육정책 시행 전후를 모두 경험한 최소 만 5년 이상의 보육교사 총 10명을 표본추출하였다. 이는 연구조사에 적합한 표본추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연구자의 근무지역이 서울시 종로구이기에 표본추출과 조사응답에 대한 이해를 잘 할 것으로 생각되는 학부모와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한 판단표본추출방법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No.	학부모	보육교사
대상특성	1	•부모연령/성별: 만 39세/남 •직업: 전문직 •학력: 대졸 •자녀구성(성별/나이) - 남/만 5세 - 남/만 1세	•교사연령/성별: 만 34세/여 •학력: 전문대졸 •어린이집유형: 국공립어린이집 •근무경력: 만 10년
	2	•부모연령/성별: 만 37세/여 •직업: 초등교사 •학력: 대졸 •자녀구성(성별/나이) - 여/만 10세 - 여/만 5세	•교사연령/성별: 만 37세/여 •학력: 대졸 •어린이집유형: 국공립어린이집 •근무경력: 만 12년 이상
	3	•부모연령: 만 38세/남 •직업: 사무직 •학력: 대졸 •자녀구성(성별/나이) - 여/만 5세(쌍둥이) - 남/만 3세	•교사연령/성별: 만 27세/여 •학력: 대재 •어린이집유형: 국공립어린이집 •근무경력: 만 6년
	4	•부모연령: 만 39세/여 •직업: 서비스직(파트타임) •학력: 전문대졸 •자녀구성(성별/나이) - 여/만 11세 - 남/만 5세	•교사연령/성별: 만 41세/여 •학력: 대재 •어린이집유형: 국공립어린이집 •근무경력: 만 13년
	5	•부모연령: 만 38세/여 •직업: 회사원 •학력: 대재 •자녀구성(성별/나이) - 남/만 13세 - 여/만 10세 - 남/만 4세	•교사연령/성별: 만 28세/여 •학력: 전문대졸 •어린이집유형: 국공립어린이집 •근무경력: 만 6년
	6	•부모연령: 만 34세/여 •직업: 전업주부 •학력: 전문대졸 •자녀구성(성별/나이) - 남/만 7세 - 남/만 4세	•교사연령/성별: 만 27세/여 •학력: 전문대졸 •어린이집유형: 국공립어린이집 •근무경력: 만 7년
	7	•부모연령: 만 41세/여 •직업: 기능직 •학력: 고졸 •자녀구성(성별/나이) - 여/만 17세 - 남/만 14세 - 남/만 2세	•교사연령/성별: 만 26세/여 •학력: 전문대졸 •어린이집유형: 국공립어린이집 •근무경력: 만 5년
	8	•부모연령: 만 41세/남 •직업: 회사원 •학력: 대학원졸 •자녀구성(성별/나이) - 남/만 6세 - 여/만 3세 - 남/만 1세	•교사연령/성별: 만 38세/여 •학력: 대졸 •어린이집유형: 국공립어린이집 •근무경력: 만 8년
	9	•부모연령: 만 36세/여 •직업: 전문직 •학력: 대졸 •자녀구성(성별/나이) - 남/만 5세 - 여/만 1세	•교사연령/성별: 만 41세/여 •학력: 대학원졸 •어린이집유형: 국공립어린이집 •근무경력: 만 15년
	10	•부모연령: 만 41세/여 •직업: 전문직 •학력: 대졸 •자녀구성(성별/나이) - 여/만 6세 - 남/만 3세	•교사연령/성별: 만 28세/여 •학력: 대졸 •어린이집유형: 국공립어린이집 •근무경력: 만 5년
조사방법		1:1 개별 심층인터뷰	1:1 개별 심층인터뷰

4. 자료처리

선정된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개별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였다. 연구자는 질문지에 기반한 구조화된 질문을 하고, 보육교사와 학부모는 개방형 질문을 하였으며, 평균 30~40분 동안 이루어졌다. 자료분석 전에 각 인터뷰는 보육교사와 학부모의 동의하에 녹음하였다. 자료처리는 총 3차에 걸쳐 진행되었고, 1차는 녹음된 내용을 STT(Speech to Text)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음성을 문서로 변환하였고, 2차는 문서로 변환된 내용을 그룹핑하거나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 Context를 연결하고, 키워드와 주요 내용을 도출하였다. 3차는 각 응답자별, 조사 항목별로 정리하고, 응답 내용을 유사성과 특이성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응답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응답자가 말한 내용이 맞는 지 인터뷰 후에 본인 검증을 시행하였다.

제 2 절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심층인터뷰 자료의 분석방법은 Moustakas(1994)가 제안한 방법(유기웅 외, 2012)을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첫째, 인터뷰 자료의 의미 있는 내용을 추출하였다. 둘째, 추출된 의미 있는 내용 들을 관련성 있는 소주제로 묶거나 분류하고, 이렇게 묶어진 소주제들을 다시 하나의 영역으로 구성하여 대주제로 묶거나 구성하였다. 셋째, 하나의 개념으로 묶인 자료를 기반으로 묶인 이유, 어떤 의미가 있는 지를 추가 분석하였다. 넷째, 위의 과정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의 다양화와 더불어 인터뷰의 경우에서도 조직 내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한 부류의 정보제공자들만 인터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류의 정보제공자들을 인터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다수의 연구 조사자, 다수의 자료원, 혹은 연구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다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어느 특정 연구자의 편견이나 지나친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다수의 연구자 또는 다수의 조사를 연구 과정

에 참여시킴으로써 연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질적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연구참여자 확인법을 통해 분석과정 및 결과를 공유하였다. 이때 연구자가 참여자의 의견을 왜곡하거나, 해석이 올바른지, 의견을 제대로 작성하였는지, 분석과정에서 누락이 없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보육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조사결과

무상보육 정책이 보육교사와 학부모에 미치는 영향은 무상정책의 만족도, 필요성, 시행배경, 인지도, 보육교사 혜택, 교육 영향도, 무상보육 시행 전후 변화, 무상보육 장단점 및 개선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각 문항별 분석은 보육교사와 학부모 입장에서 각각 수행하였다.

1. 무상보육정책의 만족도

가. 보육교사 입장

무상보육정책의 전반적 만족도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한 이유는 무상보육정책이 가정의 경제적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않은 선별적 지원 정책이 아니어서 보육현장에서는 정작 지원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더 많은 지원이 되지 못하는 정책의 단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무상보육정책이 보육교사의 만족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현 무상보육정책 만족도 수준은 불만족이에요. 이유는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건 좋은데, 부모님들이 정확히 인지 못하시고, 무상보육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시지 못하는 거 같아요.

(보육교사 #1)

소득계층에 따른 차별적 지원이 더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상보육정책의 가치와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육교사 #2)

어린이집 지원이 가정양육 지원보다 더 크다는 게 불만족스러워요. 오히려 거꾸로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특히, 영아기에는 가정보육에 대한 가치가 훨씬 높아야 하고, 그 시기에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무상보육정책이 시행되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수가 증가하고 그러다보니 어린이집에 보내면 아이를 다 키워준다는 잘못된 인식을 만들어 준거 같아요. (보육교사 #4)

무상보육은 실제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보육의 질이 더 떨어졌습니다.

(보육교사 #5)

무상보육은 가정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이나 책임 등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것 같아요. 전업주부임에도 양육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이유로 영아를 종일보육을 시킨다거나 근로자의 날에도 보육시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보육교사 #9)

나. 학부모 입장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 역시 전반적으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경제적 혜택지원도 중요하지만 비경제적 혜택지원, 즉 보육시설이나 보육프로그램 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 무상보육정책에는 불만족합니다. 돈만 지원해주면 무상보육이라고 여기고, 보육에 대한 지원을 다 해준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함께 제반되어야 할 시설이나 사항들이 많죠. (학부모 #1)

저는 만족해요. 그 이유는 어찌되었던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으니까 큰 아이 때보다 여유 있게 둘째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요. (학부모 #2)

무상보육이라면 부모 부담금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특별활동, 방과 후 활동까지 다 무상이었으면 해요. 그게 진정한 무상보육 아닐까요? (학부모 #6)

무상보육으로 인하여 국가에서 표준보육과정이 도입되고, 특별활동이나 특성 있는 어린이집만의 고유한 프로그램 등이 없어지고 있어요. 결국 예체능이나 영어활동 등의 특별활동을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해야 하니까 사교육이 늘어나는 게 불만이에요. 그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도 부담이구요. 결국 무상보육이지만 큰 아이랑 같이 사교육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어요. (학부모 10#)

2. 무상보육정책의 필요성

가. 보육교사 입장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모든 계층에 대한 지원보다는 소외된 계층 중심의 현실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보편적 무상복지는 개선여지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무상보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무상보육이 무엇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인지 부모님 대상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보육교사 #2)

무상보육은 아직은 시기상조인거 같아요. 선별적 보육지원이 아직은 맞다고 생각해요. (보육교사 #6)

무상보육은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과연 고소득자이거나 재벌 등 부유계층의 대한 지원도 필요할까요? 그들은 보육료를 지원하거나 말거나 고액의 육아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고, 어쩌면 보육료 지원이 되지도 않는 영어유치원 같은 사설 교육시설에서 조기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런 부유층에게 무상보육이 복지혜택이라고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육교사 #9)

나. 학부모 입장

학부모 입장에서도 무상보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소득계층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보육정책지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확대범위를 넓혀서 맞벌이나 다자녀가정까지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다.

맞벌이기 때문에 무상보육지원은 찬성하지만, 만약에 전업주부라면 어린이집에는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거예요. (학부모 #1)

필요합니다. 맞벌이라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낼 경우 어차피 지출되어야 할 비용인데 국가가 부담해준다면 지출비용에 대한 부담이 경감하게 되니까요. (학부모 #3)

필요하죠. 평등한 보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만족하지만, 부유한 집안까지 제공되는 건 반대예요. (학부모 #4)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다자녀 가정과 맞벌이는 지원하도록 해 주고, 굳이 보육료지원을 받지 않아도 여유 있는 가정까지 지원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학부모 #5)

3. 무상보육정책의 시행배경

가. 보육교사 입장

무상보육정책이 시행된 목적과 대상에 대해서는 맞벌이 부부 지원, 저출산 장려, 여성 고용창출 등 비교적 잘 인식하고 있으나, 정치적 이유로 무상보육 정책이 시작되었다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보육교사들은 무상보육정책이 시행된 이유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상보육 시행배경은 맞벌이 부모를 위한 복지정책, 평등한 교육혜택 제공정도로 알고 있어요. (보육교사 #1)

무상보육은 저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고용창출 목적으로 시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보육교사 #2)

무상보육이 진정성 있는 정책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본래 시행목적 보다 그 당시 선거공약 때문에 영향이 많이 있었고 결국 정치적 배경에 의해 많이 왜곡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육교사 #5)

나. 학부모 입장

학부모는 무상보육정책이 시행된 목적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수만이 보편성 복지 시행, 맞벌이 지원이라는 이유로 시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무상보육정책이 시행된 이유는 보편성 복지 때문에 시행된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따라 하려고 한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학부모 #1)

무상보육은 자녀 출산율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시행한
결로 알고 있어요. (학부모 #2)

시행배경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안전한 보육시설 지원 때문이라고 생
각해요. 전업주부의 육아 스트레스를 줄일 수도 있구요.
그래서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해 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시행된 결로
알고 있어요. (학부모 #8)

글쎄요. 무상보육의 경제적 혜택을 지원받으면서도 정확한 이유조차
도 모르고 있었네요. 하하하 (학부모 #7)

4. 무상보육정책의 인지도

가. 보육교사 입장

무상보육정책이란 소득별 지원에서 연령별 지원까지 점진적으로 지원하던
보육료가 현재는 소득과 계층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에게 평등한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이며, 만 0~5세아 모두
가 혜택 받는 정책이라고 대부분의 교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에는 소득하위 70%까지 지원했었고, 점차 0-2세 영아는 무상지원
으로 확대하던 것이 만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더욱 확대되었고, 지금
은 전계층 전연령 그러니까 어린이집 다니는 모든 연령에게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알고 있어요. (보육교사 #2)

소득과 무관하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다니고 표준된 프로그램으로
모든 영유아가 평등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
이죠. (보육교사 #4)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영유아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양육 스트레스 등 부담을 줄여 주고자 출생부터 7세까지의 영유아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연령대별로 보육료 산출단가는 상이하구요 그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9)

나. 학부모 입장

학부모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정확한 무상보육정책의 대상이나 지원범위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보육료 금액은 알고 있으나, 타연령의 보육료 지원금액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보육정책의 지원범위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뿐입니다.
(학부모 #1)

무상보육정책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고, 지원범위라고 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을 말할 것이고, 그 금액 역시 연령대에 맞춰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연령이 높을수록 보육료가 저렴해지는 것 같은데...
(학부모 #2)

명확한 기준 없이 전체를 다 주는건가요? (학부모 #3)

사실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다보니까 정확한 보육료 금액에 대해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부담일 경우는 매달 말일에 이체하다보니 금액을 알고 있었거든요. (학부모 #8)

5. 무상보육정책의 혜택

가. 보육교사 입장

무상보육정책이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에 경제적 혜택을 주었지만,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또한, 보육 프로그램 및 교육 투자, 학부모의 자녀 출산 의향, 자기개발 기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보육정책 보다는 보육교사 개인 의지, 어린이집 원장 의지, 다른 제도 등이 보육 프로그램, 자기개발 기회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특히 무상보육정책 때문에 학부모의 자녀 출산 의향을 더 가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무상보육정책은 보육교사의 보육 스트레스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이유로는 월아 수 증가에 따른 보육 외 학부모 요구사항 증가, 구비서류 증가, 서비스업종 종사자와 동일 인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커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 경제적 혜택 :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입장에서 보았을 때 경제적 혜택을 주었지만,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보육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의 변화는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근무환경개선비 정도로 처우개선비가 증가하긴 했지만 그만큼 수요와 요구도가 높아지고 업무량도 가중되었거든요. 원 운영도 무상보육 전이나 현재나 큰 차이 없어요. (보육교사 #2)

무상보육에 따른 경제적인 혜택으로 어린이집 지원이나 환경변화 차이는 없는 거 같아요. 오히려 평가인증이나 다른 지원으로 환경이 개선되거나 하는 것 같은데요. (보육교사 #7)

(2) (재)취업 혜택 또는 동기부여 : 무상보육정책으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취업의 기회가 생긴 건 맞지만, 역으로 보육스트레스로 인하여 파트타임 근무조건으로 이동하는 사례도 있었다.

담임교사였다가 올해부터 비담임 보조교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무상보육으로 인하여 맞벌이 학부모뿐 아니라 가정에 계신 어머니들의 요구도가 많아지고 제가 떠안는 책임도 많아져서 저는 오히려 지금 공부하면서 잠시 담임을 내려놓고 있는걸요. (보육교사 #4)

개인적으로 저는 임용된 상태라 재취업의 혜택이나 동기부여는 없었지만, 무상보육정책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보조교사나 보육도우미 등 취업의 혜택이 생긴 건 맞는 것 같네요. (보육교사 #9)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육투자 : 보육프로그램 및 교육투자는 무상보육 정책보다는 보육교사의 개인의지와 어린이집 원장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이전과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보육이 아니더라도 보육 프로그램은 매년 신학기에 연간보육 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하는 거라 이것 때문에 보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투자에 영향을 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보육교사 #4)

교사들의 교육은 자기의지나 원장님의 권유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지 무상보육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보육교사#5)

(4) 학부모의 자녀 출산 의향 : 무상보육정책 때문에 학부모의 자녀출산 의향을 더 가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무상보육이 자녀 출산에 영향을 주었다면 출산율이 늘어났겠죠.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더 저출산이 되었잖아요. 크게 영향을 주진 못했다고 봐요. (보육교사 #4)

(5) 보육 스트레스 절감 : 원아수 증가에 따른 보육 외 학부모의 요구가 많아지고, 무상보육으로 인한 구비서류 증가 등으로 보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들을 보육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 보다는 부모 응대 스트레스가 더 늘어났어요. (보육교사 #1)

아이들을 보육교사가 무조건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부모님들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손 씻겨 달라, 옷갈아 입혀달라, ○○○와 놀이하지 않게 해달라, 다쳤는데 잘 좀 봐달라 등 엄마의 역할을 전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숨 (보육교사 #3)

무상보육정책으로 정부의 점검도 강화되다보니 서류 작성뿐 만 아니라 비업무적인 게 늘어났어요. (보육교사 #7)

보육이 무상으로 흘러가다보니 복지가 되고, 저희를 교직원이 아닌 서비스업 종사자로 생각하세요. 그러다보니 교사들은 기분이 언짢고 스트레스를 받게 경우가 증가해요. (보육교사 #9)

아동학대 언론보도 이후로 이전보다 보육교사 신뢰관계가 악화된 거 같아요. (보육교사 #10)

(6) 보육교사 자기계발 기회 : 무상보육정책보다는 타제도적 지원이 더 크게 반영되고 업무량이 증가하다보니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어 자기계발의 기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자기계발 기회는 부모님의 요구사항에 대응으로 오히려 줄었어요. 퇴근해도 부모님 전화받느라 업무의 연장선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시간적 여유도 함께 없어져요. (보육교사 #1)

보육교사의 자기계발 기회는 교사 개인의 의지거나 원장의 방침, 타 제도적 지원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지 무상보육정책 하나만으로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 #5)

나. 학부모 입장

무상보육정책이 학부모 가정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 준 점에 대하여 학부모의 만족도는 높았으나,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마다 차이가 있었다. 조사결과, 무상보육정책이 재취업 혜택, 자녀 교육 투자, 양육 스트레스 절감, 부모 자기계발기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었지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자녀 출산 의향에는 응답자 모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 경제적 혜택 : 학부모 가정에 경제적 혜택을 준 것에 대한 수준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부분 만족도는 높았다.

큰 아이는 자비로 보육시설을 다녔고, 둘째는 무상보육이라 가계에도움을 준거 맞아요. (학부모 #2)

무상보육 경제적 혜택은 분명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출해야 할 비용이니까. 근데 저희야 맞벌이 가정이고 저희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봤을 때 보육료지원 안 해 준다고 해서 어린이집에 다니지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학부모 #3)

가계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건 금전적인 비용 외에 제반적 시설까지 지원되어야 하는데, 금전적 지원에 치중했어요. (학부모 #1)

(2) (재)취업 혜택 또는 동기부여 : 시간적 여유로 인하여 파트타임취업

등 재취업의 혜택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었지만,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시간 조정 등 기업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저희는 맞벌이라서 무상보육 상관없이 취업 중입니다.
(학부모 #1,5,8,10)

어린이집에 보내는 시간동안 시간적 여유와 여건이 마련되어 재취업을 했어요. (학부모 #2,4)

육아휴직도 사용하지 못하고 취업했는걸요. 무상보육과 저는 무관어요. (학부모 #9)

큰 아이 교육 때문에 취업생각은 못합니다. 다른 가정은 조부모님들께 부탁하여 양육을 함께 한다는데 저는 애들 케어 하느라고 힘듭니다. (학부모 #6)

(3) 자녀 교육투자 : 무상보육 지원 금액만큼 자녀(다른 자녀)의 사교육 지출로 사용되고 있었고, 저축, 가족여행 등으로도 지출되고 있었다.

무상보육 지원금액만큼 큰 아이와 작은 아이 사교육에 지출해요. 사교육도 우리아이 취미나 예체능 활동으로 미래투자라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학부모 #2,4)

보육지원 금액만큼 자녀 장기보험과 사교육에 투자하고 있어요.
(학부모 #3)

아이교육에 투자하지는 않고, 적금 20만원 수준이에요. (학부모 #5)

지원 금액만큼 인지는 모르겠으나 사교육이나 가족여행을 더 하게 되었죠. 아이들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주위에서도 다들 그렇게 하고 있고, 안 시킬 수도 없을 것 같고요. (학부모 #9)

(4) 학부모의 자녀 출산 의향 : 응답자 모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영유아 시기 이후에 발생하는 양육비용, 교육비용이 더 크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무상보육지원 받자고 자녀 출산의향이 생기진 않아요. 오히려 비용이 늘어나니깐요. (학부모 #2,3)

출산의향에 도움이 전혀 되지는 않았어요. 20여만원 지원받자고 출산의향이 생긴다는 것도 그렇고 경제적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뭐 매달 백만원씩이라도 대학교 때까지 지원해 준다면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웃음. 근데 임신부터 들어가는 비용이랑 아이 출산 후 조리원 비용을 생각해 본다면 매우 심사숙고해야 할 겁니다. 웃음 (학부모 #4)

오르는 전세값 걱정해야 하고, 대출금도 그렇고, 지금도 벅찬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야 아이 하나는 더 낳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학부모 #7)

보육료를 지원 받았다고 자녀 출산의향이 생길리가 없죠. 저는 한 동안 근무시간을 좀 짧게 하거나 토요일 교대근무도 쉬고 싶지만, 입이 안 떨어져요. 탄력적 근무와 다양한 근무형태로 출산여성을 배려해 준다고는 하지만 아직 기업문화의 정착에는 많이 부족한 현실이잖아요. 한숨 (학부모 #9)

(5) 보육 스트레스 증가 : 보육스트레스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

히 가정양육 전환하고 맞벌이 가구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스트레스는 오히려 늘어난 거 같아요. 저는 어린이집에 맞벌이
라서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라서 이른 아침에 보내려면 먼저 깨워서
옷 입히고, 시간 맞춰 보내야 하고, 오후에 저도 지치는데 돌봐야 하
구요. (학부모 #2)

양육스트레스는 잠시라도 기관에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
을 주기 때문에 줄여 줬다고 생각해요. 제가 남자라 늦게 퇴근하고
사실 애들 양육은 대부분 와이프가 하는 편이라 와이프는 또 다를 수
있겠네요. (학부모 #3)

(6) 부모 자기계발 기회 : 무상보육으로 시간적 여유로 인한 기회가 생
겨서 자기계발을 하는 학부모는 없었다.

취업여성의 경우는 자기계발의 기회뿐만 아니라 시간적 여유조차도
매우 부족한걸요. 시간이 생긴다면 쉬고 싶을 뿐이에요. (학부모 #5)

회사 끝나면 아이 데리러 부리나케 뛰어가야 하고, 자녀를 어린이집
에 보낸 시간만큼 자기계발 기회가 늘어날 수가 없지 않나요?
(학부모 #9)

6. 무상보육정책의 보육관 영향도

가. 보육교사 입장

무상보육정책은 보육교사의 보육 교육관, 부모의 가정보육 전환에 영향을 미
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오히려 무상보육정책이 어린이집 보육이 부모님으
로 하여금 자녀교육 역할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았다. 결국 어린이

집 보육이 자녀교육 역할과 책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1) 어린이집 교육관의 변화 : 무상보육정책과 어린이집 교육관은 무관하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과 생활하고 다양한 교육을 받으면서 변화 하는 거라서 무상보육이 영향을 주지는 못한 거 같아요.

(보육교사 #4)

어린이집이나 교사의 교육철학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서서히 쌓이는 것이기에 무상보육으로 쉽게 바뀌지는 않아요. (보육교사 #7)

(2) 어린이집의 역할변화 :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육까지 어린이집에서 해야 하고, 가정에서의 역할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무상보육정책 시행 이후로 학부모님께서는 부모교육까지 어린이집에서 모두 다 해결해 주길 더 기대하세요. 오히려 부모 가정교육 전환 보다는 어린이집 교육으로 떠넘기신다고 할까? 무상보육이 부모의 가정에서의 역할과 교육을 더 소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보육교사 #1)

무상보육정책 시행 이후로 학부모님들께서 보육교사에 대한 시선이 하향되었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보육관이 아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복지라는 개념이 포함되어서 수요자인 아동의 부모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어린이집역할이 부모역할까지 다 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보육교사 #2)

어린이집이 부모 역할까지 70~80% 역할을 대체했다고 봐요. 거의 저녁에 귀가하여 잠만 자고 아침에 다시 어린이집으로 등원하거든요.
(보육교사 #4)

(3) 가정보육으로의 전환 : 양육수당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어린이집 보육에 대하여 자녀교육 역할을 기대하므로 가정보육 전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부모의 가정보육 전환에 영향을 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죠. 어린이집에서 부모 역할까지 다 해주시기를 요구하세요.
(보육교사 #3)

무상보육이 부모 가정교육 전환보다는 어린이집 보육으로 전환했다고 보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어린이집이 부모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는 거구요. (보육교사 #6)

무상보육은 마치 공짜보육,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손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부모 가정보육 전환이 늘지는 않을 거 같아요. 게다가 가정양육수당보다 보육료지원금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을 계산하여 보고 손해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구요. 영유아시기의 부모의 역할과 애착형성이 중요한데 자녀를 돈으로 계산하는 것 같아서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보육교사 #9)

나. 학부모 입장

무상보육정책으로 자녀 교육관, 부모 가정보육 전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이 부모역할 대체 수준은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무상보육정책으로 인한 국가수준의 프로그램인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을 획일적인 보육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아이의 특성

에 맞는 교육을 생각해 본 가정이 있었으나, 맞벌이라는 현실 때문에 가정 보육으로 전환할 의도는 없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무상보육 정책 개선점 중 하나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자녀 교육관 변화 : 무상보육정책은 자녀 교육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보육정책 시행만으로 자녀 교육관이 변화된다는 게 더 이상한데요. 자녀 교육관은 특별한 정책보다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잖아요. 무상보육 정책만으로 자녀 교육관이 변화하지는 않아요. (학부모 #1)

무상보육 하나만으로 자녀 교육관 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학부모 #3)

(2) 자녀교육의 부모역할 변화 : 무상보육정책은 어린이집이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교육의 기본 책임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하구요. 어린이집과 부모 가정보육을 병행할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학부모 #1)

어린이집은 부모 역할을 20%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은 양육을 하는 거지, 부모 역할을 해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가 하는 가정보육으로 전환하고 싶어요. 맞벌이라서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만.. (학부모 #2)

1차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 어린이집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학부모 #7)

1차 책임은 부모이지만 주변의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의지하고 있는 것 사실인 것 같아요. 절반정도는 어린이집이 부모역할을 해주는 것 같은데 무상보육을 하면서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학부모 #9)

(3) 부모의 가정보육 전환 : 무상보육정책과 함께 국가수준의 누리과정보다는 내 자녀에게 맞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가정보육을 원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가정보육 전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보육정책은 7살까지 아이가 원하는 대로 놀이중심의 자율적 교육으로 변화시켜 줬어요. 결국 부모 교육의 중요성인 거죠.

누리과정은 아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똑 같은 프로그램이잖아요. 맞벌이만 아니라면 아이 특성에 맞는 맞춤형으로 가정보육을 했을 거예요. (학부모 #2)

어린이집 보육은 가정에서는 할 수 없는 공동체 생활 중요성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가정 보육은 달라서 병행할 겁니다. (학부모 #3)

가정보육으로 전환할 의도는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교육이 필요한 연령이 되었고 가정에서 가르치기 벅차거나 함께 규칙이나 질서를 터득해 나가야하는 중요성도 있으니까요. (학부모 #7)

7. 무상보육정책의 장단점 및 개선점

가. 보육교사 입장

무상보육정책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소득이

있는 계층까지 무상보육지원 제공으로 오히려 균등하지 못한 보육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았다. 결국 무상보육정책은 선별적 보육지원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1) 장점 : 무상보육정책의 장점으로 소득과 무관한 전계층의 평등교육을 실현이라고 인식하였다.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보육교사 #1)

소외계층에게도 교육기회가 제공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보육교사 #2)

(2) 단점 및 개선점 :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며, 부모와 가정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등 다양한 요구가 개선되어야 할 정책으로 보고 있다.

단점은 보육교사 입장은 고려되지 않고, 부모님 입장 중심의 정책인 거 같아요. 개선점은 어린이집 교육과 부모님들의 가정교육이 함께 병행되는 실질적 정책이 있었으면 해요. (보육교사 #1)

시간연장보육과 같은 제도를 보면 부모가 퇴근해도 귀가하진 않고 석식제공을 부탁받기도 하고, 토요보육도 부모는 홈웨어차림으로 등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다못해 근로자의 날에도 부모 모두 휴무임에도 불구하고 힘들다 또는 볼일있다 등으로 운영여부를 여쭙어보세요. 교사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정교육에 중요성을 알고 부모역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이 약화되어 것 같기도 하고 부모의 요구가 끝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퇴근이후에 보육을 부탁할 경우는 부모의 자부담이 꼭 있어서 공짜보육이라는 왜곡된 보육정책을 시정해야 해요. (보육교사 #2)

무상보육 대상이 모두라는 게 오히려 불공평한 거 같아요.
더 어려운 사람에게는 더 지원하고, 조금 사정이 나은 가정은 조금 적게 지원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곧 개선점이라고 생각해요.
(보육교사 #3)

무상보육이 오히려 사정이 좋은 가정까지 지원하다 보니 그 돈으로 사교육에 쓰고... 평등한 기회 제공이 불평등한 교육기회를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선택적 보육으로 차등지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봐요. (보육교사 #4)

무상보육이 입소대기자를 더 늘게 했어요. 지역에서 가까운 곳을 못 가게 되거나 정작 어린이집 보육이 필요한 맞벌이가정이 밀리는 경우도 생겨나요.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구비 서류가 더 늘어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실질적인 교사 처우 개선이 있었으면 해요.
(보육교사 #6)

0~1세 영아들은 보육시설보다 가정에서의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데, 그 영아들은 부모로부터의 양육받을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는 박탈당하고, 결국 부모님들의 의지만으로 입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시간제보육 같은 것도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과도한거 같아요. 엄마의 사랑과 애착이 잘 형성되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안타깝죠. 저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사회도 함께 맞춰줘야 해요.

예를 들면, 출산과 육아휴직, 탄력적 근무제도 등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잖아요. 기업과 우리사회의 제도와 환경이 개선되어야하는데 어린이집만 강화되고 그럴수록 아이들과 부모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보육교사 #9)

저소득층 가정에게 입소 우선권 제공 등 비경제적 혜택까지 단계별로 확대되었으면 해요. (보육교사 #10)

나. 학부모 입장

무상보육정책은 가정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소득별 지원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와 같이 단점이자 개선점으로 보았다.

(1) 장점 : 경제적인 가계지원을 무상보육정책의 장점으로 인식하였다.

가장 큰 장점은 소외된 계층의 보육기회 제공이요. (학부모 #1)

무상보육 장점은 누가 뭐래도 경제적 혜택이죠. (학부모 #2)

(2) 단점 및 개선점 : 보육의 질이 저하되고, 양육수당지원금도 보육료지원금과 동일하게 인상되어야 하며, 자녀양육과 부모역할을 위한 기업문화의 성장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단점은 가정 특성이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에요. 그래서 보육료 맞춤 지원, 다양한 가정을 지원해 줘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부모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급증한 수요에 대해 보육에 질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구요. (학부모 #1)

가정 양육수당에 대한 지원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린이집에 의존하지 않고, 부모 역할을 더 고민할 꺼라 생각합니다. (학부모 #2)

무상보육 시행으로 어린이집 대기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소득이 높은 가정에도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3)

소득별 차등지원으로 개선되었으면 해요. 누구나가 아님...
(학부모 #7)

무상이라는 이름하에 보육만 복지로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녀를 근로시간만큼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게 능사도 아니고 따로 저녁에 양육을 부탁해야 할 베이비시터나 조부모님들께 의지하는 가정도 너무 많고 야근이라도 있는 날에는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어요.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져야 하는데 무상보육정책이 이러한 가정과의 밀접한 관계구축에는 이바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보육정책은 일터나 기업에서도 함께 동반해야하고 육아에 따른 제도 개선들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학부모 #10)

제 2 절 무상보육정책 실시 전후 보육교사와 학부모 인식 비교

무상보육정책 실시 전과 실시 후, 보육교사와 학부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무상보육정책, 자녀 보육, 보육시설 환경, 보육 프로그램, 보육교사 태도/전문성, 경제적 혜택, 학부모와 교사간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가. 보육교사 입장

무상보육 실시 전후로 가장 달라진 점은 어린이집 원아 수 증가로 부모의 요구사항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보육교사 업무 스트레스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주요 이유는 보육교사들은 학부모의 기대가 부모의 역할을 대부분 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다 보니, 이를 학부모에게 설명하고, 업무 외

적으로 응대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로 무상보육 이후에는 학부모와 교사간 관계도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무상보육 실시 이후 학부모와 교사간 관계는 부정적으로 변화했고, 자녀보육, 시설환경, 보육 프로그램, 보육교사 태도/전문성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혜택은 차이가 있었으나, 업무량 증가에 고려하면, 실시 전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무상보육 시행 전후 가장 달라진 점은 부모는 편해지고, 교사는 부모 역할을 대신하기를 기대하다 보니 업무가 가중되었다는 점이에요. 무상보육 때문에 유아 중심 환경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교사 처우 개선은 변화가 없구요. 학부모 관계는 시행 이후에 무상보육은 당연히 교사 책임이라는 인식이라 시행 전 보다 관계가 좋아졌다고 할 수는 없어요. (보육교사 #1)

가장 달라진 점은 부모들의 어린이집 의존도가 높아진거라 생각해요. 마치 교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요. 환경, 프로그램, 교사 처우개선도 바뀐 게 없어요. 학부모와 교사 관계도 갑을 관계로 바뀐거 같아요. (보육교사 #2)

무상보육이후 가장 달라진 점은 무상보육을 무료라 생각해서서 부담 없이 맡기면 된다는 부모님들의 인식 변화인거 같아요. 누리과정으로 교사의 경제적 지원은 개선된 거 같지만, 피부에 와 닿지는 않네요. (보육교사 #3)

나라에서 아이를 키워준다는 잘못된 홍보가 학부모와의 관계가 더 어려워진거 같아요. 부모님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나 할까? 사기가 떨어져요. (보육교사 #4)

누리과정 보조금이 늘긴 한 것 같은데 그만큼 업무량이 늘어난 거로 비교하면 혜택변화는 못 느끼겠어요. (보육교사 #5)

학부모와 교사간 신뢰가 더 떨어진 거 같아요. 심하게 말하면 무상보육을 내가 낸 세금으로 하는 거니 보육교사는 그 돈 받아 서비스하는 거라는 부모님의 인식차이 때문인 거 같아요. (보육교사 #6)

평가인증이나 모니터링으로 무상보육 업무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무상보육하고 비업무적인 일을 하기보다, 선별적 보육으로 하고 비업무적인 일을 줄여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보육교사 #8)

운영위원회가 전보다 강화되다보니 부모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원의 운영을 간섭한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이라면 수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교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거나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부모님들보다는 교직원들이 보육프로그램이나 보육과정에 대하여 전문가이거든요. 신뢰하고 공동양육에 대한 동반자적 관계가 점차 약화되는 것 같아 아쉽죠. (보육교사 #9)

나. 학부모 입장

무상보육 실시 전후로 가장 달라진 점으로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 증가, 무상 혜택을 좀 더 받기 위한 아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른 시기 입소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보육, 보육시설 환경, 보육 프로그램, 보육교사 태도/전문성에는 실시 전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부모와 교사간 관계는 오히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1층 어린이집이 늘어났지만, 가고 싶은 어린이집 입소가 더 어려워졌어요. 입소 어린이가 늘어나니깐 어린이집 환경은 더 열악해

진 거 같아요. 무상지원 되었다고 보육교사 태도나 전문성이 늘어날
까요? 개인의 역량과 관계가 더 높지 않나 싶네요.

저소득층은 모르겠으나, 중산층은 경제적 혜택으로 인한 변화는 없어요.
학부모와 교사 관계는 이전보다 더 악화된 거 같아요. 보내지 않아도
될 아이들까지 보육해야 하고, 인원수가 늘어나니 보육교사의
스트레스가 더 쌓인 거 같아요. (학부모 #1)

무상보육 지원 더 받으려고 둘째는 어린이집을 더 빨리 보낸거 같아요.
첫째는 심사숙고해서 입소 시기와 교육기관을 고민했거든요. 저희가
비용부담을 했으니깐요. (학부모 #2)

무상보육으로 파트 선생님이 더 늘어난 거 같지만, 보육 프로그램,
시설 환경변화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가게 경제 도움은 받은 거 맞
지만, 어린이집에 일임하다보니 더 요구는 못하겠더라구요.
(학부모 #2)

무상보육 시행 이후 자녀보육, 보육시설 환경, 프로그램, 보육교사 태
도나 전문성의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경제적 혜택은 차이는 있구요.
무상보육 했다고 교사간 관계가 변화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학부모 #3)

경제적 부담 외 달라진 건 못 느끼겠어요. 학부모와 교사 관계도 크
게 변화되었다고 못 느끼겠어요. (학부모 #4)

제 3 절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보육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비교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보육교사와 학부모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보육이 부모 보육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학부모는 어린이집이 부모 보육의 대체 수준을 낮게 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는 학부모와 교사간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보는 반면, 학부모는 무상보육 실시 전후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무상보육 실시 이후, 보육 스트레스가 학부모와 보육교사 모두 증가하였다고 보았고, 무상보육정책의 개선점으로 선별적인 계층지원을 들었다.

<표 5>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보육교사와 학부모 인식 비교 요약

No.	보육교사	학부모
만족도/ 필요성	•불만족 •필요 •시행배경/범위 인지도 높음	•불만족 •필요 •시행배경/범위 인지도 낮음
혜택 (긍정적/ 부정적)	•경제적 혜택 낮음 •교육투자/자기개발/출산의향 영향 없음 •<u>보육스트레스증가</u>	•경제적 혜택 있음 •교육투자/자기개발/출산의향 영향 없음 •<u>보육스트레스증가</u>
보육 영향도	•교육관/부모교육전환 영향 없음 •<u>어린이집의부모역할 70~80% 수준</u>	•교육관/부모교육전환 영향 없음 •<u>어린이집의부모역할 20~30% 수준</u>
실시전후 비교	•<u>학부모와교사간관계악화가가장큰 변화</u> •본인/시설/프로그램/태도전문성 영향 없음	•<u>경제적혜택이가장큰변화</u> •본인/시설/프로그램/태도전문성 영향 없음 •학부모와 교사간 관계 악화
개선점	•선별적 계층 지원	•선별적 계층 지원

1. 만족도와 필요성

보육교사의 무상보육정책 만족도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필요성은 공감하나, 보편적 무상보육정책은 개선여지가 많다고 인식하였다. 무상보육정책이 시행된 목적과 대상에 대해서는 맞벌이 부부 지원, 저출산 장려, 여성 고용창출 등 비교적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는 무상보육정책의 만족도 수준은 낮았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나, 소득계층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보육정책지원은 불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학부모는 무상보육정책이 시행된 목적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혜택

보육교사는 무상보육정책이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에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보육 프로그램 및 교육 투자, 학부모의 자녀 출산 의향, 자기개발 기회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육교사의 보육 스트레스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는 무상보육정책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고, 재취업 혜택, 자녀 교육 투자, 양육 스트레스 절감, 부모 자기개발기회에, 자녀출산의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 스트레스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보육관

보육교사는 무상보육정책이 보육 교육관, 부모의 가정보육 전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았고, 자녀교육 역할과 책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어린이집의 부모역할 대체 수준은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학부모는 무상보육정책이 자녀 교육관, 부모 가정보육 전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어린이집의 부모역할 대체 수준은 낮은 것으로 인식

하였다.

4. 실시 전후 달라진 점

보육교사는 무상보육정책 실시 전후로 가장 달라진 점은 어린이집 원아 수 증가로 부모의 요구사항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보육교사 업무 스트레스가 증가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런 결과로 무상보육 이후에는 학부모와 교사 간 관계도 더 악화된 것으로 인식하였고, 자녀보육, 시설환경, 보육 프로그램, 보육교사 태도/전문성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혜택은 업무량 증가를 고려하면, 실시 전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학부모는 무상보육 실시 전후로 가장 달라진 점으로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 증가, 무상 혜택을 좀 더 받기 위한 이른 시기 입소 등을 인식하였다. 자녀 보육, 보육시설 환경, 보육 프로그램, 보육교사 태도/전문성에는 실시 전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부모와 교사간 관계는 오히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5. 개선점

보육교사와 학부모 모두 무상보육정책의 개선점으로 소득계층을 고려한 선택적 보육지원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제 4 절 소결

보육교사와 학부모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와 학부모와 모두 무상보육정책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가정의 경제적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는 보육교사의 의견과 경제적 혜택 지원뿐 만 아니라 보육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는 학부모 의견을 종합해 보면, 만족도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인지도면에서는 시행된 목적과 대상, 지원범위와 지원연령, 지원시기 등에 대해 보육교사들은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는 편이었지만, 학부모들은 보편적 복지 시행과 맞벌이 부모를 위한 지원정책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무상보육정책의 혜택에 대해서는 보육교사는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적 혜택이라고 느끼지 못했다. 보육프로그램 및 교육투자, 자기개발 기회 등은 무상보육정책과 무관한 보육교사 개인의지가 더 많이 작용한다고 보았다. 오히려 원아수 증가로 인한 부모 요구사항 증가, 구비서류 증가, 교직원보다는 서비스업 종사자와 동일 인식에 따라 보육 스트레스가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는 소득수준에 따라 경제적 혜택의 체감도가 낮았고, 자녀출산의향에서는 응답자 모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보육교사와 학부모 모두 보육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고 보았다.

넷째, 무상보육정책의 교육관 영향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보육교사는 교육관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오히려 무상보육정책이 어린이집에서 자녀교육의 역할과 책임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학부모 역시 무상보육정책과 자녀 교육관의 변화는 무상보육정책과 무관하며 맞벌이라는 현실 때문에 가정보육 전환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의 부모역할이 무상보육으로 인하여 점차 증가한다는 답변과 함께 표준보육과정이 보편적이고 획일적이라는 의견도 나타났다.

다섯째, 무상보육정책의 실시 전후 보육교사에게 가장 큰 변화는 학부모중심의 정책으로 인하여 학부모 요구 증가와 학부모의 보육교사에 대한 시선과 신뢰도가 하향됨에 따라 학부모와 교사간의 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게는 경제적 혜택을 준 것을 가장 큰 변화로 답변하였다.

여섯째, 보육교사는 무상보육정책이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제공이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고소득 계층에게는 사교육을 조장하

고, 이는 불평등한 교육기회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또한, 학부모들은 가정에 경제적 혜택이 제공된 장점은 있으나, 보육교사와 같이 소득별로 지원하는 것이 평등한 지원이라고 인식하였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무상보육정책에 따른 보육시설에서의 보육교사와 무상보육정책의 수혜자로서 학부모의 인식조사를 비교하여 파악하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를 통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무상보육의 해당 연령인 만 0~5세 영유아를 둔 부모 중 무상보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자녀와 현재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영유아를 함께 두고 있는 학부모 10명(무상보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자녀와 받은 자녀를 모두 경험한 학부모)과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10명(무상보육 실시 전후를 경험한 보육교사)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 심층인터뷰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기간은 2015월 5월 중 총 20회의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필요성, 시행된 이유와 무상보육정책 전과 후 달라진 점, 무상보육정책의 장단점 등을 중심으로 인터뷰하였고, 각 표본들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육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분석하였다. 따라서 학부모와 보육교사의 인터뷰를 통하여 무상보육정책 개선에 필요한 내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은 첫째,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에 관해서 살펴보고, 둘째,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셋째, 무상보육정책에 대해 보육교사와 학부모 인식 차이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넷째, 무상보육정책 실시 전과 실시 후를 비교하여 정책의 장단점과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상보육정책은 교육기회를 사회적 소외 계층까지 배려한다는 점에서 필요할 수 있지만, 현재의 정책방향에는 보육교사와 학부모 모두 부정적인 입

장이었다. 무상보육정책의 시행의도에 대해 보육교사들은 만 0~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출산을 제고와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무상보육정책의 시행배경이나 범위에 대해 이해도가 높았다. 하지만,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선거공약이라고 하는 정치적 관점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부정적인 보육교사의 의견도 있었다. 이에 반해, 학부모들은 무상보육 정책의 내용과 지원범위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부분도 많았다. 학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보육시설에 바우처로 지원금이 입금되는 형태로 정확한 보육료 금액조차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둘째, 경제적 혜택 면에서 대부분의 학부모는 무상보육정책은 지출해야할 보육료를 지원받기에 경제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동안 취업이나 재취업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가정의 경제에 보탬이 되었으며, 지원된 보육료만큼 자녀를 위해 쓰거나 아이의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 시, 가계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사교육비 상승을 조장하였다는 의견도 많았다. 그리고 출산의향 측면에서 살펴보면, 영유아기 경제적 지원만으로 향후 더 큰 비용이 수반되는 사교육비, 대학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 경제적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편안하게 출산하여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업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맞벌이 부모 자녀들은 가정보육이 가능하지만, 양육수당보다는 보육료 지원금이 더 많은 탓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이익이라고 여기고 있는 부모도 있었고, 아침 일찍 깨우고 일정한 시간에 데리러 가야한다는 보육 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보는 학부모도 있었다.

보육교사들은 처우개선비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육정책으로 인하여 증가된 수요와 학부모들의 보육교사 인식이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늘어나는 학부모들의 요구로 인하여 보육스트레스가 매우 증가하였다고 인식하였다. 자기개발이나 교육투자부분은 당사자나 보육시설 원장의 보육철학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지 무상보육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보았다.

셋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태도는 외부의 지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내면에 지니고 있는 가치관의 표현이기 때문에 무상보육과는 무관하다고 보기도 하였다. 평소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느끼던 학부모의 경우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게 되어 공동육아의 책임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부모들도 있었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입장에서 자녀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음에 전적으로 동의하였고, 복지정책의 확대로 부모의 자녀양육책임이 점차적으로 어린이집에 전가되고 어린 영아는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와 보호 받아야하는 권리가 부모의 입장과 편의만을 위해 박탈당해선 안 된다고 보았다. 무상보육정책의 의미가 부모가 해야 할 자녀 양육의 책임을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고 함께 돕는다는 것인데 이러한 목적을 퇴색하게 하는 부모도 있다고 보았다.

넷째, 무상보육정책으로 가장 큰 변화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경제적 혜택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무상보육정책의 또 다른 시행배경이나 인지도가 낮기 때문이기도 하다. 무상보육시행으로 많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으로 대거 몰려옴으로써 가정양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교사간의 관계도 변화로 보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하여 보육교사에 대한 인식이 낮아졌고, 신뢰가 떨어지면서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상보육정책이 시설이나 보육프로그램과는 모두 무관하다고 나타났고, 보육교사의 태도나 전문성 역시 무상보육 실시 전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무상보육정책의 장점이라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고, 취약계층 영유아에게 소득과 지역에 차별 없이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 평등한 보편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급증하게 된 수요에 반해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정작 어린이집이용이 꼭 필요한 맞벌이 부부 자녀의 입소가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이 아이러니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기준도 입소

가능 여부와 결원에 급급하게 되는 형편이 되었다. 장점으로 꼽았던 보편적 복지는 오히려 균등한 지원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소득에 차별 없이 고소득자에게도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료로 과연 그들이 저출산의 영향이 미칠 것이지, 많은 복지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지원을 바라는 받는 것에 익숙해진 학부모가 생겨나지 않을까하는 우려 섞인 이야기도 있었다.

제 2 절 결론 및 시사점

연구의 수행을 통해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보육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도출한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상보육의 만족도에 대해 보육교사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에 상관없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재원의 마련과 받는 것에만 익숙해진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소득수준에 따라 선별지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학부모 역시 무상보육지원금으로 보육료 부담이 절감되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선별지원하고 맞춤형 보육정책으로 수요자에게 맞는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즉 보편적 복지는 누구나에게 평등한 지원이지만, 부유층과 나란히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균등하지 않다는 해석인 것이다. 더 이상 포퓰리즘에 의한 정책이 아니라 정책이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재원마련의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두 그룹 모두 현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누구나가 아닌 소득계층에 따른 선별적 지원으로 많은 복지예산의 낭비되지 않고, 적절히 지원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둘째, 무상보육정책의 내용이나 지원범위, 시행 의도에 대하여 보육교사들은 저출산을 해결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적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학부모들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았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현재의 저출산을 해소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한 무상보육 정책의 목적이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임신부터 출생하면서 지출되는 비용을 생각해야 하고, 자녀양육시간의 확보를 위한 맞벌이 부부의 근로형태와 근무시간 조정 등이 어려운 현실에서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영유아 초기 보육비용의 지원만으로 자녀출산의 의향이 생기지 않으며,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사교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과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등 법제도 미비와 현실성 부족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과 가정 양립과 출산을 제고를 위한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의 정립과 기업의 재정적인 지원이 지원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은 어느 한 가지만의 충족이 아닌 복합적인 요인의 개선과 해결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산재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 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셋째, 무상보육정책이 시행되면서 양자간에 느끼는 가장 큰 차이는 실시 전후에서 나타나는 변화이다. 학부모에게는 보육료 지원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을 가장 큰 변화로 느끼고 있었고, 자녀의 양육비지원으로 자녀양육비용 지출을 감소시킴으로써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육교사는 학부모와 교사간의 관계가 악화로 보육 스트레스가 증가된 점을 꼽았다. 주요한 이유는 무상보육으로 복지정책이 확대되는 것은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전적으로 보육시설에 전가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성형성에 중요한 영유아시기에 너무 일찍 어린이집에 맡겨져서 겪게 될 수도 있는 심리적 불안에 따른 2차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함께 가정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무능한 부모가 양산되진 않을까하는 보육교사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다.

또한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 주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종일제 12시간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여건은 열악한 현실에 놓여있다. 근무환경개선, 처우개선 등 지원이 있어도 가중되는 보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게 2교대 근무 등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여 생

애초기교육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들도 자기계발의 기회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무상보육정책의 장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부분도 많았지만, 불편한 문제들이나 달라졌으면 하는 개선사항이 많았다. 우선 학부모 입장에서 경제적인 도움과 함께 가정양육에서 시설양육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는 무상보육으로 인하여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으로 입소하게 되어 대거 보육기관으로 유입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다. 더 이상 포퓰리즘에 의한 정책이 아닌 영유아 부모들이 무상보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하고, 좋은 정책을 제대로 홍보함과 동시에 학부모들의 관심이나 부모교육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는 무상보육 취지가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에 필요한 보호 및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올바른 영유아를 육성하는 것인 만큼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공인숙 외. (2013). 『최신보육학개론』. 교육과학사.
- 김사현 · 주은선 · 홍경준. (2013), 『무상보육 및 관련 정책 이슈들에 대한 핵심 이해집단의 선호 분석: 서울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Vol. 40, No.2. 205-235.
- 김선애. (2007). 『공보육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명. (2008) 『보육시간의 다양화와 영유아의 요구』. 한국보육지원학회 추계 학술대회자료집. 20-42.
- 김정래. (2013). 『무상보육 확대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및 대안 탐색』.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2013-01, 제6장. 129-153.
- . (2014). 『무상보육 전면 실시에 따른 규제 문제』. 제도와 경제 Vol. 8(1). 165-182.
- 김정숙. (2014). 『무상보육정책 실시 후 보육서비스에 대한 어린이집 학부모와 원장의 인식』.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장애통합교육 전공.
- 김정자. (2006). 『보육시설에 대한 취업모의 선호도 분석: 서울시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후남. (2014). 『보육기관 어머니들의 무상보육정책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아동복지학과 아동복지전공.
- 명순희. (2013).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 박연화. (2013). 『보육지원정책에 대한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인식유형: 저출산 및 무상보육제도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

공 석사학위논문.

백혜리 · 노은호 · 황성원 · 조미환 · 박종옥 · 이순영 · 곽혜경 · 최효영.
(2009). 『보육과정』 . 창지사.

서문희. (2012). 『보육의 국가책임과 정부의 역할』 . 새누리당 정책토론회,
2012. 7. 20. 토론문3.

_____. 김은설 · 장혜경 · 박수연. (2008). 『일하는 여성 보육지원 강화방
안』 . 노동부.

양미선. (2014).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의 보육 교육서비스 이
용 실태 및지원방안』 . 육아정책연구소 이슈 페이퍼 2014-6. 1-4.

여성가족부. (2006). 『영아보육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연구』 . 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06-58. 7-13.

유기웅 · 정종원 · 김영석 · 김한별. (2012).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 박영
사.

유은경. (2012). 『무상보육에 대한 어린이집 학부모의 인식과 만족도 조사』 .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유아교육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유해미. (2003). 『아동 양육 정책의 재편과 시민권의 변화-스웨덴의 사례를
중심으로』 . 페미니즘 연구 Vol. 3. 9-29

이삼식. (2012). 『외국의 보육, 양육정책: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 보건복
지 이슈&포커스, 제 169호 (2012-50).

이순월. (2011). 『출산장려 보육정책 만족도에 관한 연구: 보육시설 학부모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숙희. (2011). 『만5세 공통과정의 전망과 과제』 . 국회보육정책토론자료집.

이신우. (2012). “무상복지 근본주의”. 『문화일보』 . 2012. 7. 10.

장선화. (2013). 『무상보육정책으로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낸 전업주부의 경
험에 관한연구』 . 부산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전공 석사학위논문.

정광진. (2012). 『보육의 국가책임과 정부의 역할』 . 새누리당 정책토론회,

2012. 7. 20. 토론문.

정인선. (2013). 『한국과 스웨덴의 일, 가정 양립 정책 비교분석: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여성인적자원개발전공 석사학위논문.

정효정. (2012). 『가정 양육 기회가 박탈된 무상 보육의 문제점과 제언』. 한국영유아보육학회 Vol. 73호 제 2 호. 459-472.

조병환. (2006).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성연 외. (2000). 『영유아보육의 이해』. 학지사. 22.

조아영. (2014).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어린이집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및 만족도 조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최미경. (2012). 『출산장려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무상보육정책 방향』. 저출산 대책 정책토론회. 36-382.

최미향. (2013). 『보육정책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한국여성개발원. (2002). 『영유아 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보육인프라 확충방안』. 연구보고서.

한지혜. (2002). 『프랑스에서의 가족지원 및 영아보육제도: 가정보육모 제도를 중심으로, 교육이론과 실천』, 12(1). 1-13.

황성원. (2009).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랑스의 육아지원정책』. 한국교육개발원 40. 77-122.

홍승아 · 김은지 · 이영미. (2010).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지원서비스 효율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국외문헌

Creswell J.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London, Sage Publications, Inc.

Fournier, Susan, & Yao Julie L. (1997). Reviving Brand Loyalty: A Reconceptualiz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consumer-brand relation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arketing*, 14. 451-472.

Moustakas, C. (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Thomson, Craig J. (1997). Interpreting Consumer: A Hermeneutical Framework for Deriving Marketing Insights from the Texts of Consumers Consumption Stori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August). 32-35.

_____.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 50. 179-211.

_____, Icek & Martin Fishbein. (1980). Understanding Attitude and Predicting Social.

부 록

[질문지 : 보육교사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질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질문은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질문지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는 반드시 익명으로
처리하고, 또한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응답자
분의 개인 정보는 법에 의해 유출되지 않고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5월

- 지도교수: 한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천근
- 연구자: 한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윤재선

※ 무상보육정책에 관한 아래의 질문을 읽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주요 질문
만족도	■ 현 무상보육 정책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만족 or 불만족 중 택 1) 만족한다면 만족하는 이유, 불만족한다면 불만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필요성	■ 현 무상보육 정책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그 이유, 불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행배경	■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된 이유(배경)가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인지도	■ 무상보육 정책이 어떤 정책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 현재 무상보육 정책의 지원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상보육 혜택 (긍정적/부정적)	■ 경제적 혜택 - 무상보육 정책이 어린이집 경제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도움이 되었다면 그 이유는? 도움이 안 되었다면 그 이유는? ■ (재)취업 혜택 또는 (재)취업 동기 부여 - 무상보육 정책이 (재)취업 또는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도움이 되었다면 그 이유는? 도움이 안 되었다면 그 이유는? ■ 보육 프로그램 및 교육 투자 - 무상보육 지원으로 보육 프로그램 또는 교육 투자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 있다면 그 이유는? 없다면 그 이유는? ■ 학부모의 자녀 출산 의향 - 무상보육정책이 학부모의 자녀 출산 의향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움이 되었다면 그 이유는? 도움이 안 되었다면 그 이유는? ■ 보육 스트레스 절감 - 무상보육정책이 보육 스트레스를 줄여 주었나요? - 줄여 주었다면 그 이유는?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 보육교사 자기계발 기회 - 무상보육정책이 보육교사 자기계발 기회를 주었나요? - 주었다면 그 이유는?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보육 영향도	■ 무상보육으로 어린이집 교육관에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있다면 그 이유는? 없다면 그 이유는? ■ 자녀교육의 기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이 자녀교육 역할과 책임을 얼마나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신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 무상보육정책이 어린이집 보육에서 부모 가정보육으로 전환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향을 주었다면 그 이유는?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상보육 시행전후 비교	■ 무상보육정책 변화 - 무상보육 시행 전과 시행 후,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 보육교사 본인 변화

	- 무상보육 시행 전과 시행 후, 원생 보육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 보육시설 환경 변화 - 무상보육 시행 전과 시행 후, 보육시설 환경 중 가장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 보육 프로그램 변화 - 무상보육 시행 전과 시행 후, 보육프로그램 중 가장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 보육교사 태도 변화 - 무상보육 시행 전과 시행 후, 보육교사 태도 중 가장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 교사 처우 개선 변화 - 무상보육 시행 전과 시행 후, 교사 처우 혜택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 학부모와 교사간 관계 변화 - 무상보육 시행 전과 시행 후, 학부모와 교사간 관계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상보육 장점	■ 무상보육 정책의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 경제적 지원 - 자기 개발 기회 제공,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증가 - 소외계층 지원 - 보육시설 격차 해소, 보육교사 처우 개선, 입소대기자 증가
무상보육 단점	■ 무상보육 정책의 단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 어린이집 입소 어려움 - 무상보육 지원 대상 불공평 - 보육시설 운영 어려움, 보육시설 자율성 감소 -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어려움 - 보육교사 업무량 증가, 보육교사 처우 하락
무상보육 개선점	■ 무상보육 정책의 개선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 보육료 맞춤 지원 (취약계층 실질 무상보육 지원) - 정책 지속 시행 또는 예산 확대 (보육재정 안정화) -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 추가 경비 부담 완화 (사교육 없는 교육 환경) - 다자녀 추가 지원 - 평가인증제도 효과성 제고 - 무상보육의 육아휴직 동반 시행 강화

◆ 응답내용은 자료처리만을 위해 사용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 드리며,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① 남자 ② 여자

① 만19세 이하 ② 만 20~29세 ③ 만 30~39세
④ 만 40~49세 ⑤ 만 50~59세 ⑥ 만 60세 이상

① 미혼 ② 기혼

① 고졸 ② 전문대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졸업 ⑤ 기타

① 보육교사 ② 회사원 ③ 전문직
④ 공무원 ⑤ 자영업 ⑥ 프리랜서
⑦ 기타 ()

① 국공립어린이집 ② 민간 개인어린이집
③ 가정 어린이집 ④ 기타 ()

7. 어린이집 근무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 ① 만 3년 이하 ② 만 3~5년
③ 만 5~7년 ④ 만 7~10년 ⑤ 만 10년 이상

8. 귀하의 일일 근무시간은 어떠합니까?

- ① 9~18시 (8시간 근무) ② 9~18시 이후 (8시간 이상)
③ 7:30~21:30 이상 (10시간 이상)

- 오랜 시간 협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문지 : 학부모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질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질문은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학부모 인식’을 분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질문지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는 반드시 익명으로
처리하고, 또한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응답자
분의 개인 정보는 법에 의해 유출되지 않고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5월

- 지도교수: 한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천근
- 연구자: 한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윤재선

※ 무상보육정책에 관한 아래의 질문을 읽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주요 질문
만족도	■ 귀하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또는 가정보육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현 무상보육 정책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만족 or 불만족 중 택 1) ■ 만족한다면 만족하는 이유, 불만족한다면 불만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필요성	■ 현 무상보육 정책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필요하다면 그 이유, 불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행배경	■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된 이유(배경)가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인지도	■ 무상보육 정책이 어떤 정책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 현재 무상보육 정책의 지원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상보육 혜택 (긍정적/부정적)	■ 경제적 혜택 - 무상보육 정책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도움이 되었다면 그 이유는? 도움이 안 되었다면 그 이유는? ■ (재)취업 혜택 또는 (재)취업 동기 부여 - 무상보육 정책이 (재)취업 또는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도움이 되었다면 그 이유는? 도움이 안 되었다면 그 이유는? ■ 자녀 교육 투자 - 무상보육 지원금액만큼 비용지출이 줄어든 것이고 본다면, 지원 금액만큼 저축 또는 아이를 위한 미래 투자를 하십니까? - 하신다면 그 이유는? 안 하신다면 그 이유는? ■ 자녀 출산 의향 - 무상보육정책이 자녀 출산 의향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움이 되었다면 그 이유는? 도움이 안 되었다면 그 이유는? ■ 양육 스트레스 절감 - 무상보육정책이 양육 스트레스를 줄여 주었나요? - 줄여 주었다면 그 이유는?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 부모 자기계발 기회 - 무상보육정책이 부모의 자기계발 기회를 주었나요? - 주었다면 그 이유는?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보육 영향도	■ 무상보육으로 자녀 교육관에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있다면 그 이유는? 없다면 그 이유는? ■ 자녀교육의 기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이 자녀교육 역할과 책임을 얼마나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신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 어린이집 보육에서 부모 가정보육으로 전환할 의도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이유는?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상보육 시행전후 비교	■ 무상보육정책 변화 - 무상보육 시행 전과 시행 후,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 학부모 본인 변화 - 무상보육 시행 전과 시행 후, 자녀보육에서 가장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 보육시설 환경 변화 - 무상보육 시행 전과 시행 후, 보육시설 환경 중 가장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 보육 프로그램 변화 - 무상보육 시행 전과 시행 후, 보육프로그램 중 가장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 보육교사 태도/전문성 변화 - 무상보육 시행 전과 시행 후, 보육교사 태도/전문성 중 가장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 경제적 혜택 변화 - 무상보육 시행 전과 시행 후, 경제적 혜택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학부모와 교사간 관계 변화 - 무상보육 시행 전과 시행 후, 학부모와 교사간 관계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상보육 장점	■ 무상보육 정책의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 경제적 지원 - 자기 개발 기회 제공,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증가 - 소외계층 지원 - 보육시설 격차 해소, 보육교사 처우 개선, 입소대기자 증가
무상보육 단점	■ 무상보육 정책의 단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 어린이집 입소 어려움 - 무상보육 지원 대상 불공평 - 보육시설 운영 어려움, 보육시설 자율성 감소 -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어려움 - 보육교사 업무량 증가, 보육교사 처우 하락
무상보육 개선점	■ 무상보육 정책의 개선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 보육료 맞춤 지원 (취약계층 실질 무상보육 지원) - 정책 지속 시행 또는 예산 확대 (보육재정 안정화) -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 추가 경비 부담 완화 (사교육 없는 교육 환경) - 다자녀 추가 지원 - 평가인증제도 효과성 제고 - 무상보육외 육아휴직 동반 시행 강화 - 보육교사 처우 개선

◆ 응답내용은 자료처리만을 위해 사용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 드리며,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① 만 0~5세 보육료 ② 장애아 보육료
③ 다문화 보육료 ④ 방과후 보육료 ⑤ 시간 연장 보육료

7. 귀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국공립어린이집 ② 민간 개인어린이집
③ 가정 어린이집 ④ 기타 (_____)

8. 무상보육 혜택을 받는 자녀는 몇 명입니까?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9. 무상보육 혜택을 받는 자녀의 성별과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직접 기입 부탁드립니다) 예) 첫째 자녀 (남, 만 3세)

첫째 자녀 (,)

둘째 자녀 (,)

셋째 자녀 (,)

넷째 자녀 (,)

- 오랜 시간 협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n The Perception of Nursery teachers and Parents about the free care policy

Yun, Jae-Seon

Major in Counselling of Social Welfare

Dept.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Since the country's free childcare policy was decided to support the full cost of care to target only 0-2 years old in 2011, it is being implemented for the fourth year in June 2015, only the current range is expanded to 0-5 years old.

Childcare policy that began under the guarantee equality of education starting at an early stage in human development has increased with the positive effects and negative effects, while supporting policy change at no charge to all children. This effect is seen in that the beneficiaries of the nursery teachers, parents and key stakeholders aspect of child care need to compare if there are differences in perception.

In this study, parents experiencing both before and after free childcare policy and nursery teachers experiencing both before and after free child policy with over 5 years career were extracted for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Especially if the free care policy is to accept

the same with each other, looking at whether major differences in some areas, also want to explore the future direction of improvement. To summarize the main results,

First, in the nursery teacher, the free care policy may be necessary in that care without discrimination to the social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the underprivileged, but it should be screened and supported, depending on income level with financial resources. Parents saw the necessity because of supporting the household economy, too, it was able to get the results that universal welfare in that it does not need to provide the same opportunity is relatively changed with personalized care policy considering the income levels.

Second, nursery teachers about the purpose of promoting free childcare policy are recognized in the low birth rate solving, encouraging women's economic activities, the burden of child care and stress solving, parents generally did not know much. In particular, awareness of parents about the child's birth appeared to be willing to not affect the child's birth only willing to support the cost of care for infants and children early. Business and society will get provided a long-term, systematic plan to continue actively to resolve the fertility rate decreases.

Third, while the biggest changes that parents are aware of the implementation of free care policy appears to be an economic benefits, while reducing expenditures on the cost of raising children, the nursery teachers perceiv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nursery teachers were worse, because of increasing demands of parents to send children who is available for home care, and recognize that childcare stress also increases.

Free care policy to parents is necessary for improvement by media relation of the recognition and free child and parent education about the correct policy care, in nursery teachers, it was necessary for the operating time shortened and two shifts for customized child care.

【Key word】 free childcare policy, childcare impact, free childcare policy strengths and weaknesses, free child care benefits, childcare stress,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childcare support, improvements for child care teacher's treatment, childbirth intent

